

목록

2023-2SBU윤세민 윤세민 (3)	1
2023-2SBU윤세민 윤세민	3
2023-2SBU전서진 전서진	5
2023-2UCM김수연 김수연	10
2023-2UCM박민서 박민서	12
2023-2UCM배지유 배지유	16
2023-2UCM최민석 민석 최	17
2023-2UMKC경나현 경나현	19
2023-2UMKC송희수 송희수	21
2023-2UMKC이주영 이주영	26
SSAP 참여 보고서_의류학전공_이나원 이나원	29
SSAP_201810644 조성빈 조성빈	31
★ SSAP 참여 보고서_jisue ryou 유지수 유지수	33
★ SSAP 참여 보고서_MSSU 김지민 김지민	34
★ SSAP 참여 보고서_UCM신보나 신보나	37
2023-2 LCU 김새은 김새은	40
2023-2 LCU 양희민 양희민	44
2023-2 MSSU전채원 전채원	46
2023-2 SBU 백지민 백지민	49
2023-2ASU홍희정 홍희정	51
2023-2LCU김유진 김유진	53
2023-2LCU문지연 문지연	55
2023-2LCU배서연 배서연	57
2023-2LCU배서연 배서영	58
2023-2LCU송서영.docx.pages 송서영	59
2023-2LCU신혜영 신혜영	61
2023-2LCU윤지원 윤지원	64
2023-2LCU이지수 이지수	68
2023-2MSSU심민정 심민정	70
2023-2MSSU정지영 정지영	73
2023-2SBU김나영 김나영	77
2023-2SBU김예림 김예림	82
2023-2SBU김채원 김채원	84
2023-2SBU송유진 송유진	85
2023-2SBU윤세민 윤세민 (1)	88
2023-2SBU윤세민 윤세민 (2)	90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윤세민
학번(연도만) 및 전공	지적재산권전공 2021
파견시기	2023 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SUNY StonyBrook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1 월 22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1) 파견 대학 정보

SUNY StonyBrook은 New York State 중 Long Island에 위치해있습니다. 뉴욕 주립대 중 이과대학이 특화되어있으며 수준 높은 수업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종이 많은데 타 대학에 비해 동양인이 많습니다. 특히 SUNY Korea나 타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많이 와 한국인이 많습니다.

### (2) 지역 및 생활 정보

Long island는 NYC와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2시간 정도 기차를 타면 NYC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 봐왔던 장소들을 모두 방문할 수 있습니다. StonyBrook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Smith haven mall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시간에 한 대 쇼핑몰로 가는 버스가 다니며, 토요일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Target, Walmart 등 마트가 있는데 일요일에 학교 버스가 무료로 운행합니다.

교환학생 분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평일에는 학교 밖을 나가지가 쉽지 않은데 체육관, 카페, 식당, 편의점 등 학교 시설이 잘 되어있어 평일에 학교 밖을 나가지 않아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3) 수강과목 및 수업 활동 정보

StonyBrook IEC프로그램은 103,104반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따라 수업 내용이 다릅니다. OT날에 레벨테스트를 보고 반 배정이 됩니다. 주 5일 수업을 하며 오전 수업, 오후 수업으로 나뉘는데 오전에는 speaking, listening 그리고 writing, reading 수업을 같이 묶어서 총 2교시로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American culture, Ted Talks, Voca, Grammar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발표 수업으로 104는 팀플이 있습니다.

### (4) 기타 과외활동 정보

학기 초에 동아리 박람회가 열리는데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으니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술 동아리는 한 학기만 하고 가기에 너무 짧기 때문에 운동 동아리나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활동 중에 StonyBrook 미국 학생과 국제학생들을 1:1 매칭을 해주는 English Pal 활동을 하면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영어회화를 연습하거나 미국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StonyBrook 지원 프로그램인 **Beyond the Brook**에 참여하면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박물관, 관광지, 농장, 놀이공원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행사들이 많이 열리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IEC Chat time**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이티브TA와 30분씩 대화하거나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후 얻은 것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뜻깊었던 활동이었습니다. 파견 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견 후에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면서 시행착오를 해결해나가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으로 영어 실력이 급격히 늘지는 않았지만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6) 후배들에게 조언

한 학기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파견을 가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어 같은 경우 가기 전에 영어 회화 공부를 어느 정도 준비해가면 미국에서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활동을 함께 있어서도 가기 전에 미리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계획하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학교환이었지만 정규수업들을 청강하였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학교환 프로그램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토플을 준비해서 정규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윤세민
학번(연도만) 및 전공	지적재산권전공 2021
파견시기	2023 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SUNY StonyBrook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1 월 22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1) 파견 대학 정보

SUNY StonyBrook은 New York State 중 Long Island에 위치해있습니다. 뉴욕 주립대 중 이과대학이 특화되어있으며 수준 높은 수업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종이 많은데 타 대학에 비해 동양인이 많습니다. 특히 SUNY Korea나 타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많이 와 한국인이 많습니다.

### (2) 지역 및 생활 정보

Long island는 NYC와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2시간 정도 기차를 타면 NYC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장소들을 모두 방문할 수 있습니다. StonyBrook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Smith haven mall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시간에 한 대 쇼핑몰로 가는 버스가 다니며, 토요일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Target, Walmart 등 마트가 있는데 일요일에 학교 버스가 무료로 운행합니다.

교환학생 분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평일에는 학교 밖을 나가지가 쉽지 않은데 체육관, 카페, 식당, 편의점 등 학교 시설이 잘 되어있어 평일에 학교 밖을 나가지 않아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3) 수강과목 및 수업 활동 정보

StonyBrook IEC프로그램은 103,104반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따라 수업 내용이 다릅니다. OT날에 레벨테스트를 보고 반 배정이 됩니다. 주 5일 수업을 하며 오전 수업, 오후 수업으로 나뉘는데 오전에는 speaking, listening 그리고 writing, reading 수업을 같이 묶어서 총 2교시로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American culture, Ted Talks, Voca, Grammar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발표 수업으로 104는 팀플이 있습니다.

### (4) 기타 과외활동 정보

학기 초에 동아리 박람회가 열리는데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으니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술 동아리는 한 학기만 하고 가기에 너무 짧기 때문에 운동 동아리나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활동 중에 StonyBrook 미국 학생과 국제학생들을 1:1 매칭을 해주는 English Pal 활동을 하면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영어회화를 연습하거나 미국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StonyBrook 지원 프로그램인 **Beyond the Brook**에 참여하면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박물관, 관광지, 농장, 놀이공원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행사들이 많이 열리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IEC Chat time**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이티브TA와 30분씩 대화하거나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후 얻은 것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뜻깊었던 활동이었습니다. 파견 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견 후에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면서 시행착오를 해결해나가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으로 영어 실력이 급격히 늘지는 않았지만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6) 후배들에게 조언

한 학기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파견을 가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어 같은 경우 가기 전에 영어 회화 공부를 어느 정도 준비해가면 미국에서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활동을 함께 있어서도 가기 전에 미리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계획하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학교환이었지만 정규수업들을 청강하였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학교환 프로그램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토플을 준비해서 정규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전서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0, 경제금융학부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Stony Brook University
국가	USA
보고서 제출일	2024년 1월 16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 0. 개요

Stony Brook 대학교는 뉴욕 주립대로, 맨해튼에서 기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다. 뉴욕의 땅 크기를 생각하면 아주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다. 기차 표 값은 편도 약 30달러이며 한 두 번 환승을 해야 하지만 환승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차 표 결제 및 기차 상태, 환승 정보는 'Train Time'이라는 어플로 모두 해결 가능하다. 기차 내부도 넓고 쾌적하여 가는 길이 많이 힘들지는 않다.

학교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적응하기 쉽다. 교환학생으로 오는 한국 학생들이 많을뿐더러, 인천에 위치해 있는 스토니브룩 국제 캠퍼스에서 오는 SUNY Korea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캠퍼스 내에서 지나가다 한국어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이 많아 적응하기 쉽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그와 동시에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 시간에 자주 참여하다 보면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기회는 많다.

### 1. 캠퍼스

학교 캠퍼스는 상명대와 비교하여 매우 넓은 편이다. 교환학생이라면 자동적으로 배정받는 West Apartment 기숙사에서 수업 듣는 건물까지는 15분 정도로 걸리며, 학교 내에서 상시 운행하는 스쿨버스로 이용할 수 있다. 교내에 REC center라는 복합 헬스장 건물이 있는데, 이는 본교학생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교환학생은 약 80달러 정도 따로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대신 West Commons에서 무료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고, 기숙사 쪽에 농구코트, 테니스장도 있어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참고로 Commons에서 테니스공이나 농구공, 요가매트 등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고 한다.



## 2. 기숙사

스토니브룩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숙사 건물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환학생들은 자동적으로 West Apartment이라는 기숙사에 배정받는다. West Apartment는 다른 기숙사들과 다르게 조리대가 각 호실 안에 있기 때문에 밀플랜(학식 같은 개념)이 필수가 아니며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다. 보통 하나의 기숙사 호실(Suite)에 방 네 개(1인실 2개, 2인실 2개), 화장실 두 곳, 거실, 주방으로 되어 있고 꽤 넓다. 기숙사 각 층마다 세탁기와 건조대가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층마다 두 대밖에 없어서 사람이 없는 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한다.



West Apartment E동 1층에 있는 West Commons에서는 헬스장(무료), 컴퓨터실, 프린터, 정수기, 각종 물품 대여가 가능하다.

또한 West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라면 Wanger mailroom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아마존이나 한국에서 택배를 받는 경우 집 앞으로 배송이 되지 않고 메일룸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수령하러 가야 한다. 주소지를 입력할 때 구글맵에 나오는 주소를 사용하면 안되고, 450 Circle Rd, West Apartment 본인 동 호수, Stony Brook, NY 11790으로 작성해야 한다. 메일룸에서

택배를 받게 되면 메일이 즉각 온다.

### 3. 식사

교내에서 식사를 할 때는 본인 개인카드를 이용해도 되지만 **Dining dollar**나 **Wolfie wallet**을 이용할 경우 세금 부과 없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West Apartment**는 주방이 있기 때문에 밀플랜이 필수가 아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밀플랜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나를 포함한 주변 친구들 모두 밀플랜을 하지 않았고, 추천하지 않는다. 가격이 아주 비싸고, 그만큼의 값어치는 하지 않는다. 생각보다 미국에 오면 직접 해 먹게 된다.

#### 1) 교내 식당

- Dining**: 뷔페식이며 **West, East** 두 곳 있음
- Roth café**: 푸드코트 형식으로 스타벅스, 햄버거, 서브웨이 등
- SAC**: 푸드코트 형식, 종류가 가장 다양함
- Jasmine**: 한식, 일식, 중식 등이 있어 기숙사에서는 가장 멀지만 자주 이용했다
- Peet's coffee**: 기숙사에서 가장 가까운 카페로 베이글이 유명함

#### 2) 교내 푸드트럭: 버블티, 피자, 할랄 등 다양함

#### 3) 학교 밖 (기차 역 근처) 식당

- China station**: 팁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음, 마라샹궈 맛있다
- Green tea**: 차이나 스테이션보다는 격식 차린 느낌, 학생보다는 가족단위가 많다

### 4. 쇼핑 및 장보기

학교에서 장 보러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학교 스쿨버스(**shopping shuttle**)를 이용하거나 **S61**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 1) **Shopping shuttle**: 매주 일요일 운행하며, 해당 쇼핑 루트를 통해 **Walmart, stop&shop, target**으로 갈 수 있다. 버스가 자주 온다는 점에서 제일 이용하기 편하다.
- 2) **S61 버스**: 교내 스쿨버스는 아니지만 주말에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승차 가능하다. 이 버스를 통해 **Smith Haven Mall**라는 쇼핑몰에 갈 수 있다. 주변에 있는 **Aldi** 및 **Trader Joe's**라는 마트들이 있으며 애플스토어나 각종 의류 매장, 치폴레와 썬벡 버거 같은 식당이 몰려 있어 **target** 등 보다 볼거리는 많지만 버스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오며 어플과는 아주 다르게 오기 때문에 아침에 출발해도 해 질 때 집에 도착할 수 있다.

### 5. 학교 시설 및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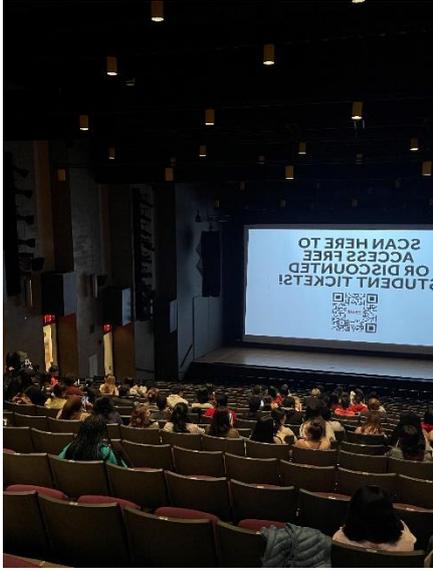
- 1) **Rec center** 및 수영장: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Rec center**는 등록금과는 별개로 돈을 지불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수영장도 **Rec center**에 내는 돈에 포함된다. 비싸긴 하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Rec**에서는 배구, 농구 코트가 있어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West Commons** 헬스장과 비교해서 시설이 매우 좋다. 한 학기에 **80달러**이면 한국과 비교해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 2) 프린트: 교내 곳곳에서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West Commons, 도서관 등). 엄연히 따지면 유료지만 학교에서 약 100달러 정도 충전해주기 때문에 학기가 끝날 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Pharos Print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기기에 문서를 업로드하고 프린터기와 본인의 계정을 연동하면 프린트할 수 있다.
- 3) Student Health Center: 헬스 센터에서는 진료도 볼 수 있고, 심리 상담이나 HPV(자궁경부암) 예방 주사 등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일반 진료는 워크인하면 남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심리 상담이나 백신 주사 등은 포털 사이트에서 일정한 날짜에 예약을 해야 한다. 참고로 스토니브룩에 머무는 동안 HPV를 3차까지 다 맞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꼭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나머지를 접종할 때 필요하다.
- 4) 교내 운동 경기: Stony Brook Athletics라는 어플을 설치하면 교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경기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배구, 농구, 미식 축구 등 다양한 경기를 무료로 볼 수 있다.



- 5) 셔틀버스: 교내에서 학기 중 상시 운행한다. Inner loop, outer loop, Shopping Shuttle, Port jefferson 등이 있다. 정류장 별 정차 시간 및 버스 현재 위치는 SBU Transit이라는 어플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Port Jefferson Shuttle은 매주 금, 토요일에 운행하는 버스로, 학교 주변에 있는 Port Jefferson이라는 항구로 가는 셔틀버스이다. 유명한 라멘 맛집이나 칵테일 바 등을 갈 수 있으며 산책하기도 좋다.
- 6) 교내 행사: 스토니브룩에서는 매일 다양한 행사를 한다. 행사 주최측 정보, 행사 개요 등 자세한 정보는 Corq라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혹 행사에서 free food, free stuff를 주는 경우도 있다. 모자 만들기 등 참여형 행사, 강의형 행사, 칵테일 마시기 등 파티 같은 행사도 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수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19 경영공학과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1월 21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는 Missouri주의 Warrensburg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블로그와 브이로그를 통해 학교와 주변에 대해 조금이나마 익히고 배웠습니다. 처음 학교에 도착했을 때 모든게 낯설었지만 미리 주변에 대해 공부하고 간 것이 도움이 되어 새로운 것에 당황하는 일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Kansas city로 나가기 위해선 누군가의 차를 이용하거나 기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한인 교회에 가서 예배 후 한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The Crossing이라는 아파트 형식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개인 방이 배정되고 룸메이트들과 거실, 주방을 공유하며 생활했습니다. 음식을 해먹을 수 있다는 것과 혼자 방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월마트 셔들을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었고 기숙사 앞에 바로 내려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주를 시작으로 거의 매일 새로운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롤러, 볼링, 영화, 연극 등 그리고 Elliot Union에서 열리는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ELI activity에 참여하여 미국의 야구장을 체험하기도 하였으며 새로운 식당과 장소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ISO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하여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알게되었습니다. 또 할로윈을 기념으로 귀신의 집을 체험하거나 international food show를 통해 새로운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모든 활동에 참여한 것이 UCM 생활을 즐기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을 학기엔 Fall Break, Thanksgiving Break와 같이 휴일 기간이 있습니다. 이 휴일을 활용해 여행도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들을 여행하며 조금 더 미국에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학교 주변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IEP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수업들을 통해 미국의 교육방식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있게 배운 것은 미국의 문화, 발표, 그리고 에세이 쓰기입니다. 교수님들의 설명을 통해 전혀 몰랐던 미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통해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었고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또한 에세이를 쓰기 위한 스텝에 대해 정확히 배울 수 있었고 이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박민서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영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1월 29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내용

#### 1. 기숙사

원래는 엘리스 단지로 붙었지만, 미국 가기 일주일 전 크로싱 2인실로 추가합격되어 크로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크로싱은 4인실과 2인실로 나뉘는데, 4인실에는 방 4개, 화장실 2개, 큰 부엌 1개, 거실이 있고, 2인실에는 방 2개와 화장실 1개, 부엌, 거실이 있습니다. 저는 2인실에서 살았었는데, 룸메이트가 깔끔하고 조용한 성격에 졸업학이라 굉장히 바빠 많이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먹을 것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지냈습니다. 층마다 세탁기와 건조기, 정수기, 자판기가 있습니다. 기숙사는 크로싱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의 다른 기숙사도 가 보았는데, 크로싱이 가장 깔끔하고 사는 게 편해 보였습니다. 가격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로싱 외에 부엌이 없는 기숙사로 가면 식비가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Todd와 Elise 학생식당이 있지만, 대부분 메뉴가 비슷비슷한 것이 나와 저는 직접 해 먹는 것이 좋았습니다. 다만 2주에 한 번 정도 화재 경보음이 울리는데, 소리가 굉장히 커서 참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기숙사 중에 가장 좋으니 기숙사 신청 기간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 수업

수강신청은 한국에서 해서 갔었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IEP 수업을 하나 신청해서 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홀드가 걸려 캠퍼스 내에서 저 스스로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선생님이 상담 후 수강신청을 마무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ELI Activity를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200달러를 내면 여러가지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업은 Floral Design, Spoke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Writte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international studies를 들었습니다.

Floral Design은 그곳에서 사귄 교환학생 친구 따라서 얼떨결에 신청한 수업인데, 가장 좋았던 수업이었습니다. 식물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와, 색과 빛 등 디자인 관련 수업을 기초적으로 다룰 수 있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실습시간이 있는데 그 때 리본 만드는 법을 배운다던지 꽃다발을 만든다던지의 활동을 합니다. 교재가 좀 많이 비싼 감이 있지만 그것은 같이 듣는 친구와 온라인으로 사서 n등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퀴즈가 있지만 책에서 다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잘생기고 친절하십니다. 학기 후반부에 가면 주변 마트(hyvee) 꽃집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거기서도 식물 줄기 자르거나 꽃에 밥 주기라던지의 기초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재밌었다고 느낀 수업이었습니다.

**Spoke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은 Amber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느리게 말해주셔서 빠짐없이 알아들을 수 있고, 같이 듣는 친구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라 쉽게쉽게 부담없이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매주 간단하게 토론을 하고, 격주로 간단하게 발표를 하는 등 뭔가 할 게 많습니다. 발음 교정도 간단하게 해 주시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었다고는 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같이 들은 친구들의 말을 빌리면, 중학교 영어 수업이다. 라고들 말하더군요. ‘난 정말 영어를 잘 하지 못하고, 난 발표가 좋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Writte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은 괜찮았던 수업이었습니다. Valerie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Valerie는 Amber와 다르게 알아듣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나긋나긋하셔서 까딱 잘못하면 좋아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아끼셔서 최대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학기 중에 짧은 에세이를 세네 개 정도 씁니다. 그리고 첨삭을 해 주시는데, 칭찬을 정말 많이 해 주셔서 영어쓰기에 자신감이 불도록 도와주십니다. 수업시간엔 문법 위주로 나갑니다. 쉬운 문법이지만 헛갈리는 부분을 복습할 수 있어 좋았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Intro international studies** 역시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국제 학생들이 있었고, 국제학이니만큼 다른 나라에 관심이 많은 친절한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역시 일본에서 살다 오신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아 음식을 사다주신 다던지의 등으로 아시아권 국제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교수님 덕분에 떡국떡과 고추장, 잡채, 새우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수업 내용과 과제로 나오는 에세이는 국제학 관련 전공이 아니면 부담이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한국어로도 모르는 단어를 영어로 공부하자니 부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업에서 사귄 친구가 관련 노트필기를 공유해주기도 하고, **extra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 학점은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미국에서는 이런데 한국은 어때?” 등의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이 수업 덕분에 너무나 좋은 미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힘들지만 친구 사귀기 너무 좋아 추천합니다!

### 3. 인프라

시골입니다. 캠퍼스 내에 스타벅스 두 개와, **spin!**이라는 피자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피자집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아 자주 먹었습니다. 유니언 지하에는 타코벨과 칩필레, 냉동스시집이 있습니다. 이 스시는 한 번 정도는 먹을 만 한 것 같습니다. 캠퍼스에서 걸어서 10분 정도에 작은 시내가 있습니다. 자바 정션이라는 커피 맛집이 있고, 식당, 클럽, 바, 빈티지샵 등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마켓도 열렸지만 위생이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았습디다. 그리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ping's hibachi**라는 식당과 **sabai thai**라는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들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Ping's hibachi**에서는 치킨을 드실 수 있습니다. 마라치킨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마라 맛이 나지는 않지만 맛있습니다. **Sabai thai**는 학교 주변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이라고 ELI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팟타이와 쌀국수를 주로 먹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걸으면 **pink jar**이라는 빈티지샵과 **yummy donut**이라는 도넛집이 있습니다. 버블티 팔아요! 차를 타고 조금 나가면 **chipotle**와 **wendy's** 등 이름있는 식당들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도보로 가기 힘든 거리라 차 있는 친구들 사귀어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버 이츠 등 배달이 되기는 합니다. 마을에 **walmart**와 **hyvee**라는 마트가 있는데, 이들 역시 도보로는 가기 힘듭니다. **walmart**는 학교에서부터 데려다주는 셔틀이 매주 있지만, **hyvee**는 없습니다. 그러나 **hyvee**는 숙주와 상추, 소주, 막걸리, 삼겹살(매우 가깝씩)이 있어 갈 수 있다면 한 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캔자스시티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Amtrak**(기차)로도 2시간 즈음 걸립니다.

### 4. 여행

가을학기 기준으로 여행을 갈 수 있었던 시기가 **fall break** 와 **thanksgiving break**,

종강 후였습니다. 저는 올랜도와 마이애미, 시카고, LA를 다녀왔습니다.

워렌스버그 역에서 캔자스시티까지 암트랙으로 다녔는데, 암트랙이 하루 2번만 있어서 아침 비행기를 타려면 밤에 공항을 가서 노숙해야 했습니다. 여자 소수끼리 간다면 위험하겠지만, 작은 공항인데다 사람도 딱히 없는 조용한 공항이라 노숙할 만합니다. 저는 여자 둘에 남자 하나가 같이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따라와서 따돌리는데 애 먹긴 했습니다. 여행지에서는 버스나 지하철보다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했습니다. 택시 같은 서비스인데, 둘의 가격을 비교해서 싼 쪽을 이용했습니다. 여행 갈 때 사람들을 모아 같이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캔자스시티에서 워렌스버그로 가고자 하는데, 암트랙 시간이 아니라면, 이 때도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늦으면 정말 비싸집니다.. 저희는 새벽 1시쯤에 이용했는데 거의 200달러가 나왔습니다.

시카고는 암트랙으로 편도 10시간입니다. 먹을 것과 충분한 배터리, 핸드폰만 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와이파이는 잘 터지지 않아 영화를 미리 다운받아서 보았습니다. 캐리어를 가져가고자 한다면 비행기는 추가금을 내야하지만, 암트랙은 추가금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로 넘어가신다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7시간이 넘게 걸리는 Felix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1시간 걸리는 비행기를 타는 것인데, 저는 비행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다녀온 11월 기준, 비행기를 빨리 예약한다면 버스와 가격차이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랜드캐년 새벽출발 등의 일정이 잡혀있다면, 더욱 비행기를 추천드립니다. 버스는 도로 사정에 따라 도착 시간이 너무 달라질 수 있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5. 팁

1. 첫날에 usbank에서 계좌와 카드를 만드는데,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곳 친구들끼리 송금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2. 밥을 직접 해 드실 분들도 meal plan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밥하기 싫을 때 간단하게 먹고 오기 좋습니다.
3. 학교 이메일로 amazon prime 6개월 무료 가능합니다.
4. 옷이 필요한데 돈이 별로 없다면 학교 근처 pink jar 빈티지샵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옷들과 가방과 신발, 악세서리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자 분이시고 귀여운 옷을 좋아하신다면, 캔자스시티 아울렛을 갈 일이 있을 때, 혹은 여행 다니실 때 francesca's를 추천드려요. clearance코너에 10달러로 귀여운 원피스를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지만 배달이 2주가 넘게 걸려요..
5. 혹시 물 맛에 예민하신 분이시라면, 기숙사 내에 정수기가 있기는 한데 맛이 없어요.. 저는 브리타 정수기를 사서 정수기 물을 한 번 더 걸러 요리용수로 쓰고, 식수로 는 생수를 먹었습니다. 생수가 떨어졌을 땐 브리타 물에 레몬즙을 넣어 먹었어요. 그러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몬즙이나 레몬을 냉장고에 구비해 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6. 겨울엔 정말 춥고 여름엔 정말 덥습니다. 겨울은 -20도 넘게까지도 내려가고, 여름은 40도 넘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제발 룽패딩까지는 아니더라도 패딩이나 히트택 정도는 준비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숙사는 여름에도 추워요. 두툼한 담요를 들고 오셔도 도움 되실 듯 합니다. 방한용품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져오셔도 될 것 같아요.
7. Weee! 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한국음식 팝니다. 한국보단 좀 더 비싼 감이 있지만, 한 번 살 때 햇반 쟁여놓고 먹으면 좋았어요. 아예 밥통을 사다가 여기서 쌀 사서 밥 지어먹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월마트에서도 쌀이 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8. Walmart에 종가 김치 있어요. 맛이 나쁘지는 않지만 한인교회에서 싸오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9. Hyvee에 소주, 막걸리, 고추장 있었고, 가끔 삼겹살도 보았습니다.
10. 한인교회에서 반찬을 싸올 수 있어요. 조그만 용기 장만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한인교회 김치 정말 맛있어요! 조금만 싸 가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부탁해보세요!

11. **ELI activity**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캔자스시티로 당일 투어도 가고 야구장도 갑니다. 학교에만 있다가 지루할 때 한번씩 나가 기분전환하기 좋습니다.
12. 인종차별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당한다면 별 이상한 놈이 있네 생각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저는 한 학기+ 여행 통틀어 다섯 번 정도 당한 것 같습니다. 차창을 내리고 지나가며 개 짖는 소리를 내더군요.

## 6. 후기

영어에 자신감도 없고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가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 중에서도 극내향이라, 외향적인 미국인들 사이에 끼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활동도 덜 참여했기도 했고요. 간 지 2달쯤 되자 한국이 그리고 약간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수업을 듣고 조금이라도 활동을 다니다 보니 친구들이 생기더군요.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자신감도 좀 붙었어요. 성적도 잘 나왔고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에 오니 미국에서의 생활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물론 너무 시골이다 보니 더욱 많은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학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UCM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되어주었습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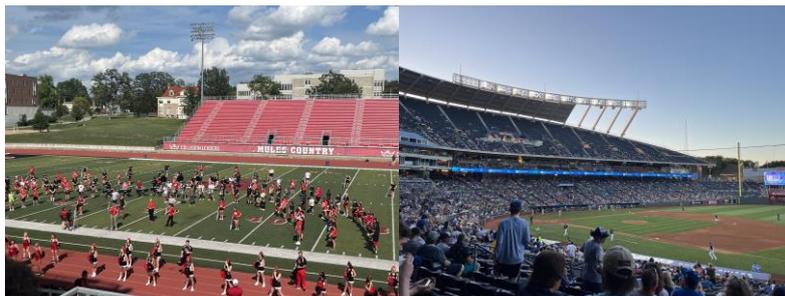
성명	배지유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스페이스디자인학과
파견시기	2023 학년도 하계방학 동계방학 2학기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단기언어문화연수(방학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US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2 월 4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내용

저는 23년도 2학기동안 UCM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미국학교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UCM은 미주리주에 있는 웨렌스버그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하여 학교 분위기는 매우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학교가 주변에 상점들이나 구경할거리가 많은 곳에 위치한 것은 아니었어서 지리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학교 내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활동과 문화들을 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 내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이 UCM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학교 내 교환학생 담당자와 소통이 매우 원활했어서 준비기간동안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며 파견기간동안에도 많은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전공을 인테리어디자인으로 갔었는데 꼭 자기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평소에 해 보고싶었던 전공의 수업을 들어보게 되면서 생긴 호기심들이 후에 여러 방면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 전공뿐만 아니라 관심있었던 전공 수업도 많이 경험해 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미국의 수업방식이 너무 좋았던 점이 한국에서는 교수님과의 소통도 매우 규격화되어있고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높아 평소 학기기간에 스트레스가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 미국 학교 수업을 통해 교수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았으며, 제가 한 결과물에 대해 항상 존중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과는 직접 현장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과 내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 또한 너무 인상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의 수업방식 또한 너무 훌륭하지만 타국에서의 수업방식 또한 배워보고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학기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활동은 학교내 미식축구경기를 보는것, 미국 야구 스타디움 방문, 학교 내 각종 파티, 국제학생동아리활동 등 미국에서만 해볼 수 경험들이었습니다. 한달 몇번씩 열리는 미식축구 경기는 스케일에 놀라고, 가끔 한번씩 놀러가는 파티들은 흥에 놀라고, 국제학생동아리활동은 다시는 경험해보질 못할 추억을 많이 남겨주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모로 한 학기동안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기고 앞으로의 진로와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최민석
학번(연도만) 및 전공	스페이스디자인
파견시기	2024학년도 하계방학 동계방학 2학기 0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0교환학생(학기 중)   단기언어문화연수(방학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UCM)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1월 17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 내용

#### 위치:

미국 중부에 있는 미주리 주에 있는 워렌스버그 라는 곳에 있습니다. 캠퍼스 자체는 엄청 크진 않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시를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렇게 오지, 시골도 아닙니다. 적당히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마을입니다. 하지만 걸어다니기엔 꽤나 거리가 있는데, 보통 교환학생들은 차가 없기에 친구 차를 얻어타거나 마트를 갈때도 셔틀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제학생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있으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물가 및 음식:

도시지역에 비해 밥값이 비교적 싸고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 10달러는 잡아먹고 레스토랑 가면 팁 포함 15달러 20달러는 금방 나오니 매번 사먹기에는 부담이 될 겁니다. 학생식당이나 교내 음식점 이용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THE CROSSING 아파트형 기숙사에 살아서 90%는 요리해 먹었습니다. 식재료는 주 2회있는 월마트 셔틀 이용하시거나 Door dash, uber eats, Instacart 등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uber eats는 워렌스버그에서 많이 안쓰여서 한시간 기다리다가 취소되기도 하니 도어대쉬 추천드립니다.

#### 건강 및 생활:

타지에서 생활하다보면 아무래도 건강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아픈 것만큼 더 서러운 건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프면 보험이 있다고 해도 병원가기도 위해서 항상 영양제 잘 챙겨드시고, 과한 패스트푸드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학교에 있는 체육관, 줄여서 Rec center라고 있는데 시설이 정말 쾌적하고 잘 되어있으니 꾸준한 운동과 관리를 통해 건강과 학업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교환학생 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 인종차별?:

한 학기 있는동안 인종차별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민감한 주제이기에 차별주의자 더라도 대놓고는 절대 하지 않고, 학교 자체가 다양한 국가, 문화권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다들 친절하고 착합니다. 흑시라도 걱정하고 계시다면 걱정 마시고 자신감 있게만 잘 행동하면 됩니다.

치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 security분들이 밤 늦게까지 다니시고, 교내 경찰도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저녁에 경찰차가 단속을 계속 다닙니다. 저도 처음에 밤늦게 돌아다니면 진짜 큰 일나는 줄 알고 무서웠는데, 캠퍼스 안은 안전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10시 전까지 돌아오거나 혼자 다니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수업:

저는 이번학기에는 전공 3개와 영어수업 1, 교양 1 해서 최대 15학점 들었는데 들을만 했습니다. 혹시나 스페이스 디자인 전공이시라면 교수님들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학생들 잘 챙겨주시니 걱정 마시고 열심히 학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오게되면 Freshman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Susan교수님(학과장)께 메일로 연락드려서 2학년이나 3학년 수업 듣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넣어주십니다. 4학년 수업은 x. 수업 과정은 상명대 수업이랑 어느정도 일맥상통해서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Haroon Sattar교수님의 Building system and sustainability 수업과 Interior Environmental system수업은 꼭 들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좀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가장 많이 남았던 수업같습니다. 그리고 Susan교수님의 Interior design presentation technique 수업도 괜찮았고 Interior design studio 수업도 꼭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동기들 통해서 저한테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수업 같은 경우 스피킹 실력을 좀 늘리고 싶어 public speaking 수업을 들었는데 한 학기에 3-5분 스피치를 한 4번정도 다른 주제로 준비해가야 합니다. 처음에 엄청 떨렸는데 하다보니 적응이 되었고 나중에는 괜찮았습니다.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본인을 놓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교양수업은 좀 활동적인, 한국에서 듣기 어려운 수업을 들어보고파 재즈댄스를 들었는데, 제가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학생들 중 대부분이 연극 뮤지컬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엄청 활발하기에 매 수업마다 기가 빨랐지만, 저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nice하신데 Christina Burton교수님이십니다. 정말 잘 챙겨주시고 분위기를 항상 띄워주시려 노력하십니다. 댄스도 정말 잘 가르쳐주십니다. 학기말에는 강당에서 단체 댄스 퍼포먼스 시간이 있습니다. 관객은 댄스 전공생들만 있어서 많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떨리고,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활 전 후 영어실력 향상 여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대체로 영어 읽기, 듣기 순으로 강하고 말하기 쓰기가 약한데, 여기서 지내다보면 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싶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든 바디랭귀지를 쓰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든 사람을 마주치고 부딪히다 보니 입이 트이고 귀가 열리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 영어실력만 놓고보면 토플 준비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실생활 영어는 여기서 많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 SSAP 참여보고서

성명	경나현
학번(연도만) 및 전공	19/생활예술학과
파견시기	2023년도 2학기
참가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중)
자매교명	UMKC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국가	미국
보고서제출일	2024년 1월 7일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 대한동의	본보고서의제출과함께포함될수있는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합니다. (1) 수집및이용목적: 참여후기수집및공개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수집/이용의거부가가능하며, 거부시학점인정불가및장학금환수

[자유롭게작성해주세요. (사진첨부가능) 본자료는향후프로그램참여의사가있는모든학생에게공개됩니다. 이발력체로작성된안내내용은제출시삭제해주시고, 이하내용작성시폰트형식이나크기는변경하지않아주세요. 작성된자료는<https://goo.gl/bLPVRK>로업로드바랍니다.]

2023년도 2학기 한 학기동안 장학교환학생으로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원래는 어학교환학생으로 참여하려 했는데, 알아보니 토플 성적을 제출하는 것 말고도 UMKC 자체 배치시험을 쳐 성적이 좋으면 정규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되어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은 Speaking, Reading, Writing 로 구성되어있으며 결론적으로 전체 레벨 4가 나와 레벨 4의 어학수업 중 1개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었고, 3개의 정규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배치시험을 치기 이전에 듀오링고 시험도 인정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험을 보았고, 결과를 제출하였지만 UMKC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배치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토플시험 성적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대체하기 위한 다른 시험을 알아보기 보다 학교자체에서 실시하는 배치시험을 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성적을 가져 장학교환 프로그램으로서 참여하게 될 경우 IRIS Program 내의 정규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의 관심사와 맞는 수업이 있는지 또 전공으로 인정이 가능한 수업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수강신청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학수업으로 Speaking & Listening 레벨 4 수업을 골라 들었습니다. 다른 정규수업으로는 Film 402, Interactive social media advertising, Intro to Criminal justice 수업을 들었습니다.

우선 Speaking & Listening 수업은 어학수업이기에 말하기와 듣기에 치중된 수업이었습니다. 소수의 학생으로 구성된 수업이며 수업 시작 후에 간단하게 조를 짜서 선생님이 준비한 주제로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게임을 합니다.

수업 중에는 note taking 하는 방법을 배우고 보통 7~8분짜리 ted talk 이나 다른 뉴스나 강연 들을 들으며 직접 노트를 작성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과제가 있으며 시험도 자주 보는데 성적은 이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정규수업들보다 더 알차다고 생각하며, 정규수업을 하나 줄이고 다른 어학수업을 들 어볼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Film 402수업은 정규수업으로 Adobe premiere pro 틀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Premiere pro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업으로 자격증 시험은 필수가 아니지만 이 수업을 토대로 시험을 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배웁니다. 교수님이 직접 알려주는 방식이 아닌 인터넷 강의를 집에서 직접 보 며 강의를 듣고 퀴즈를 준비하거나 과제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시간에는 학생 들이 해온 과제를 들어 모두와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간고사와 기 말고사도 보기 때문에 수업의 참여도보다는 과제와 퀴즈의 비율이 높은 편인 수업입니다.

Interactive social media advertising 수업은 마케팅과 관련된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는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가끔 group discussion 시간을 가져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성적은 15분 개인 발표와 큰 비중의 팀 프로젝트로 결정이 됩니다. 팀원은 무작위가 아닌 원하는 사람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Intro to Criminal justice** 수업은 팀 프로젝트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관심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후에 팀원을 지정해주는데, 캡스톤 수업을 진행하는 고학년 학생들이 팀장이 되어 팀 프로젝트를 이끌어갑니다. 수업을 하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업시간에 조별 활동을 하며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수업이었습니다.

수강신청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어드바이저와의 줌 미팅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많이 한 시점에서 하게 되면 원하는 수업을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미팅을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번 미팅을 했고 시간표를 짜기에 꼭 그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으며, 만약 수업을 바꾸고 싶다면 어드바이저와 새로운 미팅을 잡거나 직접 바꾸는 방법을 이용해 수정 가능합니다. 수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학교에서 먼저 OT를 들어보고 결정해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는 학교 안에 있는 **Johnson hall** 과 **oak hall** 또 학교 밖에 있는 **hospital hall**이 있는데 저는 **Johnson hall**을 이용했습니다. **Johnson hall**은 **oak hall**보다 멀리 있어 수업을 듣기 위해 조금 더 걸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숙사 안에 쓰레기장과 층마다 설치되어있는 정수기, 조리할 수 있는 부엌이 층마다 있다는 점이 쾌적하게 살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기숙사보다 화장실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 할 수 있으며 교환학생을 갈 학교를 정해 신청서를 넣었다면 그 시점에 함께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숙사를 신청할 때 어떤 룸메이트를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때 본인에게 맞는 성향을 고려해 신청하면 학교에서 지정해 기숙사 발표 날 홈페이지에서 기숙사와 방 번호, 룸메이트 이름을 알려줍니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 **meal plan**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밥이 맛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숫자가 적은 **meal plan**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UMKC**를 선택해 한 학기동안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 이외의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규수업들을 통해 한국과 다른 미국의 수업방식들을 경험해본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을 오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다른 큰 도시들을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 텐데 학교가 미국 중부에 위치해있어 서부, 동부로의 여행이 쉬워 학기 중에도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 영어실력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송희수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MKC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01 월 29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저는 Missouri주에 있는 Kansas city의 University Missouri Kansas City(이하 UMKC)에서 2023학년도 2학기 어학 교환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UMKC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Umkc의 토플 점수가 낮았고, 타 학교에 비해 학비, 기숙사비 등이 비교적 저렴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학교 수업, 어학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상명대에서 미국으로 보내주는 다른 학교 중에서 중상위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umkc는 학교 자체에서 시행하는 영어 시험에서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았을 경우 인사대에서 진행하는 academic class를 들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만 저는 경영대라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인사대 안에서도 마케팅 수업이 있었기에 전공점수를 채워야 했던 저에게는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의 경우 토플 점수가 없으면 academic class를 전혀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시험 기준만 통과하면 토플 점수 없이 academic class를 들을 수 있다, 학비, 학교 시설, 위치의 이유로 저는 umkc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1. UMKC 학교

#### 1-1. 시설

먼저 umkc 시설은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 미국에 대한 제 이미지는 많이 지저분하고 더러울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umkc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학교 건물이나 gym, dining hall, 도서관, 기숙사 전반적으로 정말 깔끔했습니다. 시설이 더러울까봐 정말 많이 걱정했는데 깨끗해서 저는 지내는 한 학기 동안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혹시 더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Umkc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학교 내부에 있는 Swinney center입니다. Swinney center에는 크게 헬스장, 농구장, 탁구장, 수영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 다 엄청 큼니다. 헬스장 기구도 다 깨끗하고 종류도 많아서 운동하기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또 요가매트, 유산소 기구도 다양하고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운동하고 있어도 그다지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농구장의 경우 총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Swinney center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곳은 관람의자가 움직일 수도 있어서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경기가 열립니다. 대학 농구 대회는 물론이고 여자 배구 경기도 열렸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티켓이 무료라 주말이나 시간 될 때마다 가서 경기를 관람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은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일반 소규모 경기가 아니라 치어리더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관람하러 오셔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배구 동아리에 가입해서 매 주 화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Swinney center가서 배구경기를 구경하거나 참여했었습니다. 탁구장은 한 곳에 작게 있는데 이 곳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영장입니다. 제가 Umkc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수영장인데요. 이 곳 수영장은 실내 수영장인데 한쪽이 아예 돔으로 되어 있어서 날이 좋으면 항상 돔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수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외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수영장은 굉장히 깨끗

하고 수건도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수영장은 깊은 곳은 5m까지 깊어서 다이빙도 할 수 있고 가끔 다이빙 연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나도 있고 한쪽에는 작게 공놀이 할 수 있는 수영장도 있습니다. 수영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가끔씩 풀 파티도 열리고, 저녁에 수영장에서 영화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UMKC 갔을 때 종종 운동하고 바로 수영하러 가곤 했습니다. 또 **Swinney center** 앞에는 축구 경기장이 있어서 매주 남자 축구, 여자 축구가 열리고, 풋볼 동아리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축구 때 치어리더들도 오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하기 때문에 가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부에도 자판기, 식수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도서관



수영장



축구 경기장



농구장

## 1-2. 기숙사

저는 **Johnson hall**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상명대에서 가는 교환학생이라면 기숙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Umkc에는 **johnson hall, oak street hall, hospital hill, rockhill apartment**가 선택지로 나옵니다. 저는 **johnson** 아니면 **oak street**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개의 기숙사가 학교 안에 있어서 늦은 저녁에도 안전하고 아침에 수업을 갈 때 걸어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교환학생을 간 친구는 **hospital hill**에 걸려서 1달간 그곳에서 살았는데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타던가, 일반 버스를 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셔틀버스가 굉장히 일찍 끊기고 일반 버스는 **Kansas city**에서 안타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 버스 타는 분은 대부분 마약에 잔뜩 취해 있던가, 아시아인들을 인종 차별하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가야 기숙사가 있어서 **hospital hall**은 1인 1방이라 시설은 가장 좋았지만 학교를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친구도 거기서 살다 1달 뒤에 바로 기숙사 변

경 신청해서 기숙사 바꿨습니다. 기숙사는 선택할 때 1-3순위를 정할 수 있는데요. 혹시 본인이 Johnson, oak를 했는데 hospital hall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강 한달정도 후에 기숙사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하면 비교적 빠르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Johnson hall과 oak street hall 기숙사는 비슷합니다. 두 기숙사 모두 room mate 한 명, sweet mate 2명으로 4명에서 함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조는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지만 화장실 한 개를 사이에 두고 방 두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제가 살았던 johnson의 경우 정문 쪽에 붙어 있어서 수업하는 건물들과는 살짝 멀다고 할 수 있는데 oak street보다 3-5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oak보다 더 늦게 지어져서 비교적 신축이라 조금 더 깔끔합니다. 또 세탁하는 곳이 지하에 있어서 냄새도 덜 하고 지하에 음악실이 있어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방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볼 수 있는 라운지가 3개 있습니다. Johnson에는 그래서 음악 전공인 친구들과 화학 전공인 친구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johnson 뒷문으로 나가면 플라자 가는 길을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서 플라자 갈 때 제일 편합니다.

Oak street hall은 학교에 바로 붙어 있어서 수업 들으러 갈 때 정말 편합니다. 또 바로 앞에 Whole food market이 있어서 장보거나 간식 사러 갈 때 위치상으로 정말 최고입니다. 다만 지어진지 오래 되어서 기숙사 내부 복도가 많이 어둡고 대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살던 johnson은 초반에는 냄새를 못 맡았는데 후반에 냄새가 났던 것으로 보면 거기에 사는 애들에 따라 대마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또 oak의 좋았던 점은 창문이 커서 햇볕이 잘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또 제 방과 sweet mate방에 온도 조절기가 있어서 각 방이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Johnson은 이게 하나라서 가끔 sweet mate들과 온도 때문에 기싸움한 적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친구들은 더위를 정말 많이 타서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미친듯이 틀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기숙사 방



기숙사 전경

### 1-3. 어학 프로그램

저는 umkc에서 치룬 영어 시험에서 일부 기준 이상으로 writing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학교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reading & vocabulary, Speaking & listening 수업을 들었습니다.

먼저 reading & vocabulary 수업은 de Benedetti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레벨이 제일 높은 수업으로 한국 학교에서 RC, 영어 독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목 아침 9시에 진행되는 수업으로 매일 독해하는 과제, 문제 푸는 문제를 내주셨는데 생각보다 양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수업 마치면 바로 도서관 가서 숙제 해야 했습니다. 또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단원 끝날 때마다 시험을 봅니다. 그

리고 지각은 체크 안하시는 것 같았는데 출결은 체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었던 어학 프로그램은 **speaking & listening** 수업으로 Huges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 레벨은 3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특징이 **speaking** 강의인만큼 발표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주로 학생들의 발표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토론 주제를 하나 주시면 그 수업을 듣는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학 프로그램이라 수업에는 쿠웨이트, 일본, 한국, 브라질, 멕시코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고,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문화를 들어볼 수 있었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는 처음에 많이 부담되기는 했지만 다 같이 영어를 배우러 온 친구들이고 교수님도 피드백을 잘 해주셔서 수업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 1-4. 수업

저는 어학프로그램 제외하고 최소12학점을 채우기 위해 제 전공인 마케팅 비슷한 수업과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을 들었습니다.

첫번째로 **Interactive and social media advertising**입니다. 이 수업은 강의계획서를 보니 마케팅과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신청해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강의는 마케팅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만 과제가 너무 많아 힘들었습니다. 일단 대부분 팀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영어 소통이 잘 되시는 분이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초반에는 강의로 이루어지다가 수업 끝날 때쯤 팀프로젝트가 갑자기 나와서 제출하고 발표해야 하는 시간도 많았고, 개강 후 중반쯤 되면 1시간 30분 넘게 팀원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하는 앱 서비스를 구성하고 그 앱을 광고, 기획까지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보고서와 발표까지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다행히 한국인 친구 5명에서 수업을 같이 들어 팀플을 같이 수행할 수 있었는데 다들 ppt에 욕심 있고, 과제에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라 무난하게 과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외국인 팀들은 발표도 대충하고, ppt도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혼자 들으시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대충 한 덕분에 저희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interpersonal communication** 입니다. 이거는 혼자서 들은 강의인데 화요일 저녁 5시 50분부터 거의 2시간 30분 가량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배우고 싶어 신청한 수업인데 수업 대부분이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론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출석 과제물입니다. 토론 팀은 교수님이 직접 구성해 주시거나, 팀 구성하는 방법을 매번 바꿔서 알려주셨는데 저 혼자 영어 못하는 사람이라 수업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주제를 알려주셔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고 팀 친구들이 말할 때도 각자의 슬랭, 어투로 말하다 보니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 화요일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 끝나고 보니 가장 성취감이 큰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시험은 없고 원래 중간보고서, 기말 보고서만 내면 되는 수업이라 좋았는데 기말보고서도 교수님이 취소하셔서 수업 때만 제외하고는 제일 편한 수업이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과 친해지고 싶고 많은 대화해보고 싶고, 나는 의사소통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이 수업 추천해드립니다.

#### 1-5. 주변 환경

Umkc 주변 환경은 교환학생 기준으로 거의 플라자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자는 학교에서 걸어서 10-15분 정도 걸리고 쇼핑거리라 쇼핑하고 싶을 때 플라자 가서 세포라, h&m, nike, 쇼핑했습니다. 또 먹을거리도 많아서 가끔 나가서 외식하고는 했습니다. 캔자스 시티는 고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잭스택, Q39 꼭 드셔보세요! 종종 다운타운을 나가고는 했는데 여기서도 걸어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라 무조건 친구들 모아서 우버나 리프트 타고 갑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꽤나 나오기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또 우버 타고 30분 거리에 레전드 아울렛 있어서 개강 중반, 종강 직전에 가서 타이힐피거, 폴로 등 옷 쇼핑도 했습니다.

타겟이나 월마트, 코스트코도 주변에 있기는 한데 여기도 먼 편이라 개강 직후 다 같이 가서 필요한 물품 한번에 사고 다시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조금 필요하면 대도시 여행갔을 때 사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주변 환경은 정말 뭐가 많이 없는 편이라 저도 외국인 친구가 차 태워서 어디 같이 가지 않는 이상 플라자, 다운타운 외에는 거의 밖으로는 잘 안 나갔습니다. 만약 대도시 같은 곳에서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umkc** 추천하지는 않아요.

## 2. Kansas city에서의 생활

### 2-1. 사람들, 문화

사람들은 정말 **friendly** 한 편입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제외하고 다른 길거리 사람들에게 인종차별 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밤 되면 홈리스들이 꾸물꾸물 나오기는 하는데 낮에는 도시도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 3. 참여 후기

사실 가기 전 금액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계획에 있어 갈지 말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멋진 경험을 많이 했고 새로운 경험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새로운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고, 그 친구들과도 좋은 우정을 쌓고 재미있는 경험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친구가 되어가는게 정말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도 서로 힘이 되어 외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혹시 가서 많은 것을 못 배울까봐, 비용적으로 값어치 있는 경험인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또 가는 걸 선택할 정도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 4. 기타

### 4-1. 여행

**Missouri** 자체가 미국 중부에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나 뉴욕같은 동부와 다르게 대도시도 아니고 여행다니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도시가 아니라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계속 놀러 다니지 않아서 수업에 집중할 때는 집중할 수 있고 여행 다닐 때는 여행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위치는 중부라서 서부나 동부 여행 갈 때 이동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고 대체적으로 2-3시간 안에서 끝나 좋았습니다.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할 때는 비행기타고 6시간 이상 잡아야할 정도로 미국이 크다 보니 이동거리에 따라 비행기 값이 비싸서 비행기를 좀 더 저렴하게 잡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기 중에 콜로라도, 시카고, 뉴욕, 워싱턴, 나이아가라를 다녀왔습니다. **Kansas city**가 중부라서 이동시간이 짧아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Kansas city**는 기차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물론 기차로 7시간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미국 **amtrack**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umkc**는 **thanks giving day** 때 가을방학까지 몰아서 아예 일주일을 쉬기 때문에 그 때 뉴욕이랑 워싱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학기 개강 전에 미리 학기 방향 보시고 여행 계획 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 SSAP 참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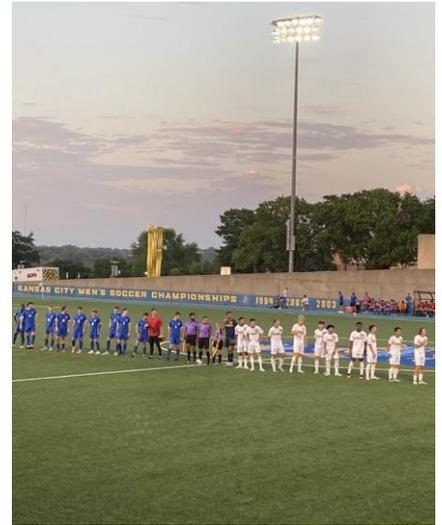
성명	이주영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1911374 생활예술학과
파견시기	2023 2 학기
참가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국가	USA
보고서제출일	2023년 12월 22일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 대한동의	<p>본보고서의제출과함께포함될수있는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합니다.</p> <p>(1) 수집및이용목적: 참여후기수집및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수집/이용의거부가가능하며,  거부시학점인정불가및장학금환수</p>

### 내용

UMKC 는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해있습니다. 일단 UMKC 생활 너무 재밌게 하고 왔어요! 처음에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가기전에는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너무 시골인게 아닐까하여 걱정도 했지만 가서 막상 생활을 해보니까 학교 주변에 도보 10 분내의 CVS, 은행, 음식점이 밀집되어있는 플라자가 위치해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있을거는 다 있어요! 학교 부근은 매우 조용하며 공기 또한 너무 쾌적합니다. 학교내에서는 주류와 담배가 모두 금지되어있어서 매우 깨끗하며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대도시와는 다르게 학교를 벗어나 조금 걸어야만 플라자같은 곳이 나오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매우 가까운 치폴레, 호키바(포케)는 제가 정말 자주 애용한 맛집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도 홀푸드마켓과 피자집이 위치해있어서 쉽게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스 커피라는 카페가 있는데 카공하기도 좋고 커피랑 스콘도 맛있었어요! 저는 학교 입구쪽에 위치해있는 존슨홀이라는 기숙사에 머물렀는데 시설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하에는 악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실이 있고 빨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티비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탁구와 포켓볼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층마다 키친이 있어서 요리할 수 있는게 좋았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도 층별로 위치해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또 정수기도 층마다 위치해있습니다. 학교 도입부쪽이라 학교와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잘 다녔습니다. 학교 건물들과 조금 더 가까운 오크 기숙사는 위치는 좋지만 시설은 존슨 기숙사가 조금 더 팬찮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기숙사 중에 호스피탈 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은 아예 캠퍼스 밖에 위치해있어서 시간에 맞춰서 학교 셔틀을 이용해 이동해야하기때문에 그 곳에서 살던 친구들은 학교 기숙사로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셔틀버스의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학기 초반에는 많은 학교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모든 것을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동하는 것만 빼면 시설 자체는 제일 팬찮은 것 같습니다. 학교 초반에는 입학식과 다양한 학교 행사들이 진행되서 정말 미국의 대학교 문화를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어서 재밌고 좋았습니다. 동아리 가입하는 부스에서는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이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환경이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밀플랜이라고 기숙사에 거주하면 필수로 선택해야하는 다이닝 옵션이 있습니다. 12 meal 이 기본 음식 옵션인데 저는 기본 옵션이 딱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외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학교 다이닝 홀에서만 먹다보면 음식 패턴이 비슷하다보니까 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옵션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밀플랜이 있어서 그래도 오전 수업 끝나고 바로 친구들이랑 식당에 가서 먹고 바로 오후 수업에 갔기 때문에 편리했던 것 같고 만약 밀플랜이 없었다면 매번 요리해먹거나 외식을 해야하는 일이 생겼을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편리하고 좋았던거 같아요! 그리고 밀플랜으로 학교 편의점에서 대체하여 음식을 구매할 수 있어요. 플렉스 머니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카드안에 미리 돈을 넣어둔 느낌으로 체크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안에 칩필레, 타코집, 스타벅스, 베이글집 등등 웬만한 곳들은 플렉스 머니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스타벅스는 2023-2 에 제가 있을때 새로 생겨서 생기자마자 애용했던 것 같아요. Student Union 에 Bookstore 옆에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팬트리라는 곳이 있는데 무료로 식재료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에요. 북북북으로 거기에 있는 식재료 종류가 매번 달라서 가끔씩 방문해서 음식들을 가져와 기숙사에서 요리해서 먹었는데 좋았어요. 가끔 우유, 계란, 쌀 등등 식재료들을 무료로 득템할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관이 정말 좋았어요. 러닝 코트, 농구와 배구를 할 수 있는 곳, 베드민턴, 그리고 요가도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곳이 학교 수영장인데 정말 쾌적하고 다양한 깊이로 이루어져있어서 다이빙 뿐만아니라 수영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어요. 해먹과 사우나도 있어서 좋았고, 날씨에 맞는 물 온도, 실내 온도도 잘 맞춰져 있어서 좋았어요. 일년 있는 친구들은 라이프 가드 시험을 보고 학교에서 파트타임 잡도 구하곤해서 저도 일년 있었더라면 지원했었을 것 같아요. 헬스장도 빠질 수 없는데 헬스장도 기구들이 매우 많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학교 도서관도 매우 좋았어요. 규모가 1~4 층? 정도로 상당히 큰데 도서관 안에서 프린터기와 스캐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안에 프린트 머니가 적립되어있어서 그걸로 프린트도 할 수 있었어요. 도서관 안에는 카페도 있고 윗 층으로 올라가면 정말 많은 책들이 있어요. 윗 층으로 올라가면 일 층보다는 훨씬 조용해서 집중하기에 더 좋았던거 같아요. 도서관 카페 라즈베리 라떼는 제가 즐겨먹었던 커피인데 아주 맛있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팀플을 할 수 있는 그룹 룸이 있어서 학기 중에는 그 곳에서 팀플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수업들이 이루어지는 Haag 홀과 Loyal 홀이 있어요. 저는 두개의 ESL 수업을 수강했고 2 개의 아카데미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ESL 수업은 금요일과 주말 제외하고 매일 수업이 있는데 숙제도 매일 있어요. 선생님이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매일 숙제가 저에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난이도도 너무 쉽지만은 않고 적당히 어려운 수업 내용들로 진행이 되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완전 꼼꼼하시고 좋았어요. 그리고 ESL에서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금요일마다 진행하는데 이 활동들도 매우 재미있었어요. 사과 따기, 홀리데이마켓 구경, 한국 추석 기념, 한국인의 날 등등 많은 체험 활동들이 있어서 즐거웠어요. 미국 대학교는 한국 대학교와 다르게 학생들을 위한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시험기간이면 키트를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아이스크림과 간식들을 정말 자주 나눠준답니다. 새롭고 신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일반 아카데미 수업들은 현지 친구들이 듣는 수업이라 확실히 내용이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긴했지만 교수님들도 우리가 교환학생인 것을 감안하여 이해해주셔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아카데미 수업시간에 만난 친구들이랑 소통하면서 미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UMKC 친구들은 대부분 거의 다 친절하고 착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 선택을 참 잘했다! 라는 생각도 들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 적응하다보면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인들을 만나게되면 서로 반가워서 의지도 많이하게되고 그래서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놀러다닐때 캔자스시티의 여러군데들을 다녔는데 우선 차가 있으면 정말 쉽고 그렇게 멀지않게 이동할 수 있어요. 무료 버스가 있긴한데 버스 안에 노숙자도 많아서 무서우니까 혼자 타는 것은 추천하지않고, 이동할때 현지 친구의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거나 우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지 친구들은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차가 있더라구요. 캔자스 시티 동물원도 재미있어서 추천하고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영화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캔자스시티에서 가장 좋아했던 곳인 리버마켓이 있는데, 정말 맛있는 것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래서 날씨 좋은 날 놀러가기에 정말 좋아요! 또 캔자스에는 바베큐가 유명해서 엄청 맛있는데 Q39 추천합니다. 학교에서부터 걸어서 10 분 거리에 있는 미술관도 무료인데 날씨 좋은 날 공원에서 피크닉하고 전시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바쁘게 과제도 하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많은 행사들을 참여하다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나고 보니 정말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것 같은데, 저도 미국오기전에 엄청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빠르게 적응하여 정말 재미있고 보람찬 시간을 보내다 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저는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었기때문에 외국인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새로운 표현들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미국 문화도 직접 경험해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제일 기억에 남는건 교내 축구장에서 축구경기 응원, 입학식의 치어리더의 축하, 포스터 세션, 할로윈 파티, 호박 파기, 뽕스기빙데이 펌킨파이와 음식 먹어보기 등등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는 학기 중, 그리고 방학인 지금에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행 많이 많이 다니세요 ! 9 월에는 노동절에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다녀왔고 11 월에는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뽕스기빙데이 연휴때도 여행을 다녀왔고 11 월에는 금공강과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중강을 하자마자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에도 여행을 하고 있고 여행을 조금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 예정입니다.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 저는 너무 행복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나서 너무 행운이고 여행을 마친 뒤에 다시 캔자스로 돌아가야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만큼 정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인거같아요. 떠날 때 너무 그리울 것 같고 아쉽고 그랬는데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같아요. 여러분도 잊지못할 소중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UMKC 추천합니다 !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나원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의류학전공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MKC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1월 9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내용

#### 프로그램 참가 전 준비사항

: 프로그램 참가 전 토플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장학교환의 경우 상명대 기준에서는 토플 점수가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 수업을 위해 자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험을 볼 경우, 어학수업의 난이도가 영어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어학수업의 레벨이 수정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토플 점수가 있을 경우,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지원하기 전 토플 점수 마련 할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기숙사 생활

: 우선, 저는 해당 학교에 여러 기숙사 선택지가 있었으나 **Oak street residence**에 거주하였습니다.

**Roommate**가 있고,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suitmate**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 지원할 때 기숙사 옵션에 **single room**이 존재하지만, 선택순인 만큼 봄, 여름 시기에 기숙사를 신청하는 교환학생의 경우 해당 방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roommate**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숙사 신청 시 있는 질문에 따라서 **roommate**나 **suitmate**가 **LGBTQ** 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숙사 생활과 비교하자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이 역시도 서로 간의 대화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기숙사에 입사하였을 때 상호간 조율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숙사를 선택할 경우 **dining hall** 옵션을 필수로 선택해야합니다. 기숙사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나, 적응 되었을 때는 그리 먼 거리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 수준이 현지 학생들 사이에서의 평가는 좋지 않은 편입니다.

#### 학교 위치

: **MCI** 공항에서는 차로 **30~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Country Club Plaza**가 위치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필요한 옷과 화장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캠퍼스가 시내에 위치 해 있으나 한국에서의 도심지에 위치한 학교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에 위치 한 만큼 캠퍼스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점은 이동에 매우 용이합니다. 기숙사에서 거주할 경우 매우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 그 외 학교생활 및 미국 생활

: 8월에 신입생들이 함께 입학하는 기간이라 많은 이벤트가 교내에서 개최됩니다. 이때 다

양한 신입생들을 만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CampusGroups**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교내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 **Free food**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어플 확인 후 이벤트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기간에 상명대에서 파견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온 한국인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어렵지 않게 초반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으며, 필수 정보들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요일은 수업이 없어 주말을 이용하여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저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말을 이용하여 시카고, 워싱턴DC의 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말을 이용한 짧은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학교에서의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해당 학교의 경우 다른 주에서 진학한 학생도 있었으나 주로 미주리 주 내에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인근 20~30분 거리에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신입생이라 할지라도 이미 아는 사람이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small talk**가 흔하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영어실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영어 실력이 더욱 향상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미국에 도착했던 초반에는 말이 빨라서, 억양이 달라서 들리지 않았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자 적응되어 더욱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화를 못하겠더라는 자세보다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 점

: 한 학기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으나, 캠퍼스 내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Kansas city**를 떠나는 날까지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UMKC** 친구들을 시작으로 하여 친구의 친구를 만나 다른 학교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나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 사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친구들과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경험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고, 잘적응할 수 있을가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였으나 이러한 경험들과 좋은 친구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만 집중하여 매우 바쁜 한국과 달리 많은 수업 중 숙제로 인해 학기 중에 바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어학수업의 경우, 난이도가 확정되어 나왔으며 이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이지 않아 비교적 쉬운 어학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에 대해서 나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으나 결과적으로 비교적 많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의사소통의 시간을 제공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향상하는 것에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대학생활보다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내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한다고 해서 아주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프로그램 참여 전과 달리 돌아와서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조성빈
학번(연도만) 및 전공	경영18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Stony Brook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1 월 22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저는 2023학년도 2학기에 어학교환학생으로 Stony Brook University에 다녀왔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는 한국에도 캠퍼스가 있어 이미 알고 있는 학교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과의 접근성도 좋다고 생각하여 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접근성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스토니브룩 대학교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LIRR(Long Island Railroad)라는 기차를 타면 약 두 시간정도 걸립니다. 초반에는 거의 주말마다, 가끔씩은 평일에도 수업을 마치고 다녀오곤 했습니다.

수업과 관련해서는 IEC, Intensive English Center라는 기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듣게 되는데, 수업은 SPK, WRT, Reading, Listening 네 가지로, 토플 시험의 요소와 동일합니다. 수업의 내용이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 과제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보다도 영어로 말하고, 생활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발표 수업이 거의 매주 있었던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 나오는 질문에 최대한 대답하려 했고, 같이 영어를 많이 쓰려 노력했습니다.

식사는 제가 주방이 없는 기숙사를 신청해서 교내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식대인 Dining Dollar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교환학생들은 주방이 있는 West Apartment에 배정된다고 하는데, 저는 해서 먹지 않을 것 같아 주방이 있는 기숙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한 학기동안 2350달러를 넣어서 썼는데, 부족하지 않게 썼습니다.

한 학기동안 미국에서 지내면서 여행은 정말 많이 다녀왔습니다. 평소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미주가 워낙 거리상으로 멀다보니 더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뉴욕은 물론이고, Fall break때는 몬트리올, 퀘벡 시티를 다녀왔고, 종강을 하고 나서는 LA, 라스베이가스, 그랜드 캐니언, 시애틀, 밴쿠버, 시카고,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워싱턴DC를 여행했는데, 후에 누군가 나라와 상관없이 교환학생을 간다고 한다면, 공부도 공부지만, 여행을 최대한 많이 다녀보는 걸 추천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은 본인만 노력하면 언어를 정말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Small Talk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수월한 편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영어 실력은 금방 늘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학기동안 정말이지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어가 많이 늘게 된 것도 좋았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견문을 많이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황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유지수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스페이스디자인
파견시기	2023 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USA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1 월 16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내용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지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0, 영어교육과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한 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Missouri Southern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3년 01월 29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내용

#### 현지 날씨 및 위치

: MSSU는 Missouri 주의 Joplin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어서 편도 20분 거리에 Northpark mall이라는 쇼핑몰이 존재해 국제 학생들은 걸어서 다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의 학교 밖을 나가기 위해서는 차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중서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온차가 정말 큽니다. 10월 즈음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급하게 전기 담요를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또 도착해서 여름이어도 실내에서 에어컨을 정말 세게 틀기 때문에 학교 건물 안에서는 긴 옷이 필요합니다. 현지 도착 후 강한 에어컨으로 인해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Joplin은 1월이 가장 춥다고 하니 봄학기까지 수강하신다면 따뜻한 겨울 옷이 필수입니다.

#### 기숙사 및 식사

: 국제 학생들은 기숙사에 살게 됩니다. 허가서가 나오면 학교 사이트에서 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ast hall, Apartment, Lion village, Quads 등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 또한 다양합니다. 개인 방을 쓸 수 있는 기숙사인 퀴드나 라이언 빌리지는 방이 잘 나오지 않아 많은 국제 학생들이 이스트홀에서 삽니다. 주방이 있는 기숙사는 퀴드와 라이언 빌리지 Suite이고, 가격 또한 두 기숙사가 비쌉니다. 퀴드 > 라이언 빌리지 > 이스트홀 > 나머지 기숙사 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 추후 자료가 필요하다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새로 지은 라이언 빌리지를 제외하고는 오래된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빨래는 라이언 빌리지에 있는 공용 세탁기나 학교식당에 있는 세탁 존을 이용하면 됩니다. 퀴드는 방 안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습니다. 기숙사 유형은 개강 후 2주 동안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는데, 학교 사이트에 올라오는 빈 방을 보고 바꾸면 됩니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무조건 학교 식당의 밀플랜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5, 10, 15, 20 순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학기가 시작하면 학교에 있는 Lion dens라는 곳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학교 밖에 나가서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0끼 이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 밀플랜이 다시 리셋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10끼였는데 1-2끼 정도는 남았습니다. 또 학생증에 200달러가 충전되는데 이 금액은 Lion dens에서만 한 학기동안 사용 가능해 부지런히 이용해야 합니다. 피자헛, 샌드위치, 햄버거 가게와 카페, 과자나 음료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등록

: 한국 학교와는 다르게 직접 담당 Advisor를 만나서 수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학기 시작하고 2주동안 정정이 가능한데, 이 또한 본인 담당 Advisor를 만나서 취소하고 새로운 수업을 넣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TB TEST 결과가 나오면 Advisor를 배정받게 되고,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 목록을 보여주거나, 추천해달라고 하면 수업을 골라 등록해줍니다. Advisor가 자리를 비우

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수업 정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 OT

: MSSU는 학기 시작 전에 국제학생 대상으로 오티 기간이 존재합니다. 늦어도 해당 오티 기간에는 학교에 도착해야 합니다. 8월 14일 월요일에 오티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현지 시간으로 8월 12일에 도착하였습니다. 한 주 동안 아침 일찍부터 오티 및 등록이 진행됩니다. 늦은 시간까진 진행하지 않고 보통 오후에 끝나는데 생각보다 힘듭니다. 국제 학생들은 오티 기간에 함께 수강 신청도 진행합니다. 어학 점수가 없는 학생들은 이 기간에 영어 시험도 봅니다. 여기서 한국 학생들에게 생겼던 문제가 있는데, 한국 학생들은 TB TEST (결핵 검사)의 결과가 나와야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 학생들이 우선으로 신청하고 남는 자리에 국제 학생들이 신청하는 방식인데, 한국 학생들은 이 TB TEST의 결과가 늦게 나와서 오티 기간이 끝나는 날 신청하거나 그 다음주 학기 시작 기간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 식당이 열지 않아서, 식사는 BSU라는 학교 단체와 Friendship Family가 준비하십니다.

#### MSSU의 국제 학생 프로그램

- 1) **International club**: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로, MSSU에서 머무는 동안 해당 그룹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국제 학생 담당 부서 중 Heather라는 분이 책임자로 계십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입하게 되는데, 해당 페이지에는 Joplin 현지에서 국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Helper분들, Friendship family 분들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로 약 10분 거리의 월마트에 데려다 주십니다. 월요일마다 투표가 올라오고, 해당 시간대의 학생들을 데려다 주십니다. 차가 없는 국제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 **Friendship Family**: 학교에 도착하기 전 이메일로 Friendship Family를 신청하라는 구글폼이 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취미가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는지 등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학기 시작 전 메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기 초 오티 기간동안 프로그램 홍보 부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성한 결과에 따라 패밀리가 매칭되었지만, 제가 머무른 학기에 국제 학생이 80여명이라 모든 학생들이 작성한 폼에 따른 가정을 만나는 건 힘들었습니다. 작성한 결과를 기반으로 현지 가정과 매칭이 되는데 한 가족 당 많게는 3명의 국제학생까지도 매칭되기도 합니다. 저는 일본인 남자애와 함께 같은 가족으로 매칭되었습니다. Friendship family 프로그램에서도 따로 리더팀이 존재하는데, 리더팀에 속한 가정과 매칭이 된다면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해당 프로그램을 12년 동안 참여하셨던 가정과 매칭되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본인의 패밀리가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꼭 바꿔달라고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 3) **Conversation Partner**: 국제 학생들 대상으로 일대일 혹은 일대다수로 학교의 현지 학생과 매칭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2번에서 언급한 프로그램의 폼과 같이 작성하라고 메일이 오는데 이상하게도 한국 학생들은 늦게 매칭이 되거나, 학기가 끝날 때까지도 매칭되지 않았습니다. 어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우선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저는 어학 수업을 듣지 않았고 계속 기다리다 11월에 어학 교수님과 이야기해서 파트너를 늦게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지 학생과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인데, 매칭된 파트너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반드시 바꿔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비록 한 달의 시간이었지만 좋은 파트너를 만나 학교를 떠나는 날까지 파트너와 함께 Joplin 이 곳 저 곳을 함께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국제학생은 차가 없기 때문에, 현지 학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급하게 차가 필요한 경우에 파트너한테 연락해서 여러 상황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등록 수업

: 저는 장학교환 학생이라 어학 수업은 따로 듣지 않았습니다

- 1) **College Composition 1**: 중급 영어 작문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기 동안 에

세이 유형을 배우고 전략에 맞추어 에세이를 씁니다. 보통 1000단어 정도 써야 했고, 학기 동안 5개의 에세이를 썼습니다. 담당 교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1:1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없었고, 본인이 제출한 에세이로 점수가 나옵니다.

- 2) **Creative Writing:** 담당 교수님이 이 학교에서 국제학생이 이 수업을 들은 걸 처음이라 할 정도로 국제학생이 많이 듣는 수업은 아닙니다. 소설, 시, 희곡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써봅니다. 활동 위주의 수업이었습니다. 본인 작품을 제출하면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돌아가면서 직접 코멘트를 줍니다. 시험은 없었고 마지막 **Final Portfolio**가 점수의 50퍼를 차지합니다.
- 3) **Small group Communication:** 한 학기동안 **Do good project**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소통 전략에 관한 것을 배우고, 학기 말 간단하게 온라인 시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잦았고, 한 학기 내내 팀플이 진행되는데 조원들이 잘 오지 않아 곤란했습니다. 국제학생들, 특히 일본 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이었습니다.
- 4) **Economics of global issues:** 여러 번의 정정 끝에 자리가 없어 듣게 된 수업으로, 저에게는 생소한 경제 분야라 힘들었습니다. 온라인 시험이 3번이고 매주 기본 3개의 과제와 퀴즈가 올라와 힘들었던 과목이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아 추후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신보나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글로벌경영학과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UCM)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1월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가을학기에 한 학기 동안 UCM으로 장학교환학생을 보내고 온 글로벌경영학과 20학번 신보나입니다. 제 SSAP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UCM으로 교환학생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위치 및 주변환경

UCM은 미주리 주 Warrensburg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보다는 시골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때문에 주변에 장 볼 곳은 walmart 한 곳, 쇼핑을 할 곳은 Marshall이라는 아울렛 한 곳이 전부입니다. 이 점을 숙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온라인으로 많은 것이 가능하니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Warrensburg의 다운타운도 카페 몇 곳, 중국 샵, 빈티지 샵 버거 파는 가게 몇 곳 그 정도이니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2. 한인교회 (미주리중앙침례교회)

위치나 주변환경 측면에서 단점만을 말한 것 같아 큰 장점을 먼저 소개해 보자면 학교 근처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을 픽업하러 일요일 오전마다 학교 크로싱 기숙사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교회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모여서 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끝나고 한식도 먹고 올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삼겹살파티, 분식 데이, 추석 즈음에는 야외예배 등 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목사님과 교회 집사님들이 학생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인교회가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메리트였습니다.

### 3. 학교 프로그램

3-1. Iso(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동아리에서 많은 이벤트 등을 합니다. Game night, international food show, Kansas city trip 등등. 제가 있었을 때는 동아리 가입을 한 학기는 \$15, 일년은 \$20달러 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멤버십에 대한 특별한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 동아리 가입은 한 번 생각해보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동아리 가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활동에 무료 혹은 별도의 참여비를 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3-2. ELI activity

Iso와 별개로 학교의 ELI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5-6번의 활동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기억남는건 KC야구 관람, 땡스기빙 저녁 등이 있습니다. 아마 오티 기간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 저희 또한 오티 기간에 활동을 모두 참여하고 한번에 결제하면 200불이 student account에 추가됩니다. 각각 활동 참여할 때마다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활동에 참여할 경우 한번에 200불 결제하는 것이 20불 정도 저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돌아다보니 꼭 모든 활동에 참여할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영화 보러 가거나, kc plaza Christmas light 보러 가기 그런 활동들은 이미 다른 활동을 통해 이미 동일한 장소를 가본 경우가 생겨 굳이 또 참여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굵직한 활동들 KC야구관람 정도만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굳이 200불 결제하지 마시고 몇 개의 활동만 참여비를 내고 참여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3-3. Friendship family

학기 중간 즈음에 advisor인 wesely의 메일을 받아 신청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메일을 잘 확인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가족분들과 가족 한 그룹- international students 2명정도 이렇게 매칭이 되어 가족분들과 3-4번 만나 여러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집에 초대되어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고, 미국교회 야외 camp fire같은 행사에 초대되어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뮤지엄에 같이가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진짜 미국 가족분들과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다들 꼭 신청하여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 3-4. conversation partner

ELI팀에서 진행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미국인 친구 한 명과 매칭이 되어 최소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1시간정도씩 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어를 한번이라도 더 말하고 사용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별한 활동은 아니고 정말 일주일에 한번 그냥 만나서 한시간정도 대화하고 헤어졌습니다. 학기 중반 이후 정도부터 시작해서 4-5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뭐 라도 하나 더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5. 그 외 동아리 활동

학기 초에 involvement fair이라고 동아리 홍보 부스를 홍보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 돌아다니시면서 관심있는 동아리 살펴보고 한 개 정도 활동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펜싱 동아리에 가입해서 주 1회 정도 참여했었습니다. 다른 한국인 친구 한 명과 함께 참여해서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원래는 주 2회 참여에 교외 및 교내 토너먼트도 자율로 참여하실 수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면 얻어 가시는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4. 그 외 정보들

#### 4-1. 기숙사 선택에 대해서

요리를 좋아하시고 신축건물에서 지내고 싶으시다면 기숙사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서 무조건 크로싱 the crossing apartment로 가세요. 저는 residence hall 중에서 Fitzgerald에서 지냈는데 확실히 오래된 기숙사라 초반에는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화장실도 청결한 편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청결하게 살고 싶으시면 직접 청소하셔야 할겁니다. 화장실에 녹슨 부분이 많아 초반에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residence hall**도 지내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공용주방도 2층에 하나밖에 없고 한식은 주로 그냥 전자레인지만 사용할 수 있는 요리로 먹었습니다. 덕분에 월마트가서 장 볼 일이 크로스ING 거주 친구들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 4-2. 밀플랜 선택에 대해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리하기 어려운 기숙사에 거주했기 때문에 밀플랜은 한 학기 80개짜리 구매하여 딱 알맞게 모두 사용하고 왔습니다.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나 **residence hall**에 거주하실 예정인 분들은 80개 추천 드립니다. 학기 초반에 하루 2번정도 다이닝 홀에 가다가 후반에는 밀플랜 아끼려고 하루 1번 정도 갔었습니다.

UCM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글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이후 UCM으로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놀러갈 곳이나 변화가 쇼핑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돈 쓸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골이라 평화롭고 사람들도 거의 친절하고 한국 어느 도시보다 공기도 좋습니다. 어느 학교든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UCM에 유독 한국인 교환학생이 많았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시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영어를 쓸 기회가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어떤 환경이든 본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UCM에서 좋은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거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면서 후회 없는 교환학생 생활을 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후회 없는 교환학생 생활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새은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역사콘텐츠전공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Lyon Catholic University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4년도 2월19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1) 학교 관련

개강은 10월 초에 하고 종강은 1월 말에 합니다. 개강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레벨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이 테스트 성적에 따라서 반이 편성되어요. 우리 학교를 통해 파견된 학생들은 모두 **intensive** 코스를 수강하게 될 것인데 월화목금은 정규수업, 수요일은 특별수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특별수업은 원하는 수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파견 시기 때부터는 반 레벨에 따라 자동적으로 편성되어서 들었어요. 저는 말하기와 듣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반이었습니다. 정규수업은 오전반(8시~12시), 오후반(1시~5시)이 있습니다. **A1 A1+ A2 A2+ B1** 등등 레벨이 촘촘히 세분화 되어있고, 거의 20개의 그룹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GROUP 2** 반이었는데 **A1** 수준으로 배우다가 학기 말에는 **A2** 내용도 배웠습니다. 오후반이어서 오전에 여유롭게 일어나서 시간 좀 보내고, 학교 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번 있는 수요일 특별수업은 오전반이어서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아침마다 힘들어서.. 정규수업이 오후반으로 배정된 게 전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보통 한 반에는 두 분의 **professor**가 계시는데 저희 반 선생님들은 나이대도 모두 젊으시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수업도 잘하시고 좋았어요. 수업은 모두 불어로 진행됩니다. 저는 불어전공이 아니어서 파견되기 전 3개월동안 학원에서 불어를 처음 배우고 공부한 상태였는데, 프랑스에 와서 수업시간에 잘 집중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불어가 들리는 상황에 놀이다 보니 **A2 diplôme**이 나올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배운 것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파견되기 전에 불어 공부 열심히 해오신다면 크나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Diplôme**이 나와야 상명대학교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diplôme**은 어느 정도의 시험 성적이 나와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Delf**처럼 **CO, CE, PO, PE**의 영역을 나눠서 치르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70%** 로 성적이 산정됩니다. 중간고사는 11월, 12월쯤에 보게 되는데 반에 따라서 시험날짜도 다르고 **PO**의 경우 저희 반의 경우 **PPT** 발표였습니다. 1월에 보는 기말고사 시험이 가장 중요한데, 비중이 매우 크고 정식 시험이니 꼭 치르셔야 해요! 레벨이 비슷한 그룹들을 한 데 모아 놓고 **CO, CE, PO, PE** 시험을 봅니다. 출석의 경우 명확한 기준은 없고 성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프랑스어 실력 늘리려 오셨으니 적당히 빠져가면서 잘 출석한다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바캉스는 10월 말~11월 초에 10일 정도, 12월말~1월 초 2주 정도 있습니다. 수업 외에도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데 원하시는 활동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교 프랑스인 학생들과 1:1로 맺어주는 **Buddy** 프로그램,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 프로그램, 미술관 탐방 등의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 학생들과 교류하는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 2) 기숙사 관련

저는 **saint-bernad** 기숙사를 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번학기에 파견된 상명대학교 친구들은 모두 **saint-bernad** 기숙사를 선택해서 썼어요. 기숙사 시설은 새로 지은지 얼마 안되

어서 매우 깨끗하고 좋습니다. 방 크기가 좀 작기는 하지만, 한 명이 지낼 정도에는 최적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으로 베개랑 담요를 제공해주지만, 담요는 겨울에는 많이 추워서 이불 사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는 오자마자 이케아에서 이불부터 샀습니다. 방 안에 조리할 수 있는 곳은 따로 없지만, 개인 냉장고는 방 안에 있습니다. 각 층마다 공용주방이 있어서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요리하기 위해서는 공용주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숙사에서 기본적으로 개인 식기, 숟가락, 포크 등은 제공해주고 프라이팬이나 냄비의 경우 공용이 각 주방마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공용 테라스, 세탁소, 공부방, 헬스장 등 모든 시설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관리인도 항상 상주하고 계시고 기숙사 출입하려면 거쳐야 하는 철문도 2개나 있어서 안전하기도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월세는 한달에 573유로로 한화로 80만원 초반대였습니다. 프랑스 주택보조금인 CAF를 신청하고 한달에 10만원대 정도의 월세를 지원받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신청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는 합니다. 혹여나 학기 전에 몇 주정도 일찍 입주하실 분들은 기숙사에다가 메일 보내고 추가 금액 내시면 됩니다!

### 3) 생활 관련

Lyon은 프랑스 제3도시로 큰 도시입니다. 쇼핑, 식당, 공원, Bellecour 광장 등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도 많고 지하철 및 기차역(perrache역)도 기숙사와 가까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학교 또한 Saint bernad 기숙사의 경우 도보로 10분 정도로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등교하기도 아주 편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위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vieux-lyon이 나오게 될 것인데, 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에 지정될 만큼 보기에도 아주 예쁘고 레스토랑, 바와 같이 즐길 것도 많으니 자주 가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식사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니 마트도 많이 가시게 될 것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주로 학교 근처에 있는 uexpress나 confluence 쪽에 있는 carrefour를 주로 다녔습니다. 그 외에도 international, Ace-gourmet 등의 아시안 마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에 있는 pochat 라는 빵집이 있는데, 가깝고 맛있어 수업 쉬는시간에 자주 갔습니다! Tête-d'or 공원이라는 아주 크고 예쁜 공원도 있으니 피크닉 가보시기도 추천드립니다.

### 4) 여행 관련

학기 중간의 바캉스가 길기도 하고, 주변 유럽으로 여행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여있다 보니 여행도 많이 가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기 시작 전후, 바캉스, 주말 등을 이용하여 프랑스 포함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총 10개국을 여행하였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뜻깊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유럽의 여러 문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시야도 한 층 넓어졌습니다.

저는 주말이나 수요일을 이용해서 파리, 니스, 안시, 아비뇽, 아를, 몽펠리에, 스트라스부르 등의 여러 프랑스 도시들도 돌아다녔는데 지역마다 느낌이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특히 안시는 개강하고 따뜻할 때 친구들과 다녀오시기를 추천합니다.

마을이 동화마을처럼 예쁘고, 스위스와 가까워 호수 등의 자연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경우 크리스마스마켓으로 유명하니 12월에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는 고흐의 도시로 유명한 아를이 가장 좋았습니다.

남프랑스의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파리를 자주 가고 싶으시다거나 프랑스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고 싶으시다면 tgv max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려요. 한달에 79유로씩 내면 한 번에 6개까지의 떼제베 기차표를 무료로 잡을 수 있어요.)

### 5) 소감

귀국한지 2주가 된 시점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한 학기 돌아보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들만 가득합니다. 가기 전에는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는데 프랑스로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든 부딪히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느끼고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새로 파견되실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됩니다. 새로운 친구들, 사람들도 만나고, 한학기동안 프랑스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 또한 너무나 재밌었고 성취감이 컸습니다. 먼 타지에서 행정부터 생활까지 오로지 나 자신을 믿고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립심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학기를 보낸 이 반년의 소중한 기억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새로 파견되실 분들도 프랑스에 오셔서 프랑스어 실력도 늘리시고, 잊지 못할 많은 추억들도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떠날 때 되면 정말 아쉬우니 프랑스에서 알차게 즐기시기를 바라요!!



등곳길 풍경



기숙사 창밖 뷰



수업 듣는 Lyon Catholic University Carnot campus



학교 0층 café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양희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1920085 프랑스어권지역학 전공
파견시기	2023학년도 하계방학 동계방학  <b>2학기</b>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b>교환학생(학기 중)</b>   단기언어문화연수(방학 중)
자매교명	UCLY(ILCF)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4년 01 월 31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 [ 기숙사 ]

자매교 개강 5일 전에 프랑스에 도착을 했다. 개강하기 며칠 전 미리 프랑스에 와서 짐 정리도 하고 주변 동네도 구석구석 구경하고, 장도 보고, 기숙사 적응도 하면 좋을 것 같다. 기숙사는 ‘생로랑’ 이랑 ‘베르나드’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내가 있는 베르나드 기숙사가 리모델링을 하였다고 들었고, 화장실이 공용이 아니라는 점이 좋아서 베르나드를 선택했다. 리모델링을 한 만큼 기숙사가 깔끔하고 개개인의 방도 정말 괜찮다. 2개월 정도 지나고 프랑스 삶에 어느정도 적응이 되면 방에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인 출입이나, 여러 기숙사에 관련된 것들을 엄청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 같아 신뢰가 갔다. 하지만 화장실이 기내 화장실과 비슷하게 공간이 좁다. 샤워 부스 공간도 너무 좁아서 샤워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런데 이것도 적응이 되면 괜찮다. 기숙사에서 기숙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터디 모임이나 -1층 공용주방에서 같이 음식 만들기 등 여러 활동을 주최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한 번쯤은 참여해서 여러 국적의 기숙사 친구들과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이 곳에 왔지만 생각보다 다른 국적의 친구와는 크게 친해지기 어려운 것 같다. 각자 자신의 나라 친구들끼리 모여 다니는 경향이 커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싸데뽕이다! 특히 베르나드 기숙사는 각 층마다 있는 공용주방에서 서로 인사만 할 뿐 은근히 다 개인적이라 크게 교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먼저 인사하고 말 걸면 좋아해주고 그래도 친해질 수 있는 친구가 분명 있다! 어떤 날에는 이탈리아 친구와 같이 각자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서 공유해서 먹기도 하였고, 우리가 한식을 요리해 주기도 하였다. 이런 일들이 무엇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기숙사 안에는 체육관이랑 피아노실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공간, 스터디 할 수 있는 공간 등 이러한 공간들이 잘 구성되어 있다. 나는 주로 친구와 피아노실에 가서 여가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 중 소소한 행복이었다. 저녁시간이 되어서 무섭거나 위험해서 나가지 못한다면, 기숙사 안에서 자신이 공간 활용을 잘 한다면 알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겠다. 그래도 4개월 동안 너무 잘 지냈던 기숙사였고, 가격은 조금 비싸다고는 하지만 이만큼 안전하고 깨끗하게 잘 지낼 숙소가 또 어디 있을까 싶다. 다만! 체크아웃을 하기 전 각자 방을 청소하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점 명심하면 좋을 것 같다. 그만큼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을 지내는 세월 동안 깨끗하게 사용하면 좋겠다.

### [ 수업 ]

첫 수업을 듣기에 앞서 반 분위기는 어떨지, 적응을 못하는 것은 아닐지, 다른 친구들에 비해 프랑스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면 어떡할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을 한 것이 무색하게도 모두가 다 배우려고 온 것인 만큼 나와 다 똑같았고 반 분위기는 너무 편안한 분위기였다. 같은 반 친구들도 모두 다 좋았다. 가르치는 교수님도 월화 한 분, 목금 한 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교수님들 또한 열정적하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하시고 너무 좋은 분들이었다. 아마 교수님에 따라 반 분위기가 좌우되는 것 같기도 하다. 나의 반은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 밥을 여러 번 같이 먹으러 가기도 했고 단합이 잘되었다. 같은 반 좋은 친구들을 프랑스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들이다. 하지만 이 또한 반(그룹)마다 싸

데뽕 이라는 것..! 다른 반 친구들은 밥은 커녕 소통도 잘 안 했다고 들었다. 친구들의 국적은 대만, 이란, 미국, 콜롬비아, 스위스, 태국, 베트남, 홍콩 등으로 다양했다. 그런데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온 친구들과 학원 개념으로 한 교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인 만큼 프랑스인 친구를 만나기는 힘들었고, 프랑스인 친구와 소통하는 일은 거의 없어서 이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각자 알아서 '버디'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프랑스인 친구를 사귀면 좋을 것 같다. 자매교에 오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그룹을 정해주기 위한 테스트이다. 하지만 여기 와서 비슷한 그룹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거의 다 짝고 오는 것 같았다..! 그래도 어느정도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룹으로 배정이 되며, 수업을 들었을 때 수준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그룹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초반에 너무 쉽게 느껴진다고 설블리 반을 옮기는 것도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의 수준이 어느정도 살짝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말 70% 비율로 기말 점수 비율이 커서 종강하기 전에 치르는 시험을 잘 준비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학기 중간중간에 과제도 많이 내주시곤 하는데 나는 과제를 못해갈 때도 있었다. 근데 과제를 못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복습하는 느낌으로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다!! UCLY(ILCF)에서 항상 주최하는 활동에 대한 이메일이 온다. 가능한 모든 활동을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투어 같은 게 있을 경우 따라다닐 수 있을 때 따라가고 자신이 원하는 한 모두 참여해 많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

#### [ 방학 기간 ]

그리고 학기 중에는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 두 번의 방학이 주어진다. 이 시기에 다들 주변에 가까운 나라나 프랑스 내에서 여행을 다닌다! 이런 방학 기간을 잘 활용해 여행도 많이 다니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첫 번째 방학 때에는 프랑스 내의 니스, 샤모니 그리고 가깝게 갈 수 있는 다른 나라 스위스의 제네바 등을 여행 다녔고, 두 번째 방학 때는 영국, 스페인, 파리 등을 갔다.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나라를 많이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가서 하는 활동, 먹는 음식 그리고 마주하는 사람들 모두 다 값진 경험으로 남는다. 그리고 주말마다 프랑스의 안시나 리옹과 어느정도 가까운 도시들을 방문하는 것도 좋겠다. TGV MAX라고 한 달에 70유로를 내고 프랑스 내의 도시를 TGV를 무한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구독 안 한 것이 아직까지도 후회로 남아있고 너무너무 아쉽다. 무조건 도착하자마자 구독하시고 주말마다 파리를 자주 방문하든, 다른 지방 도시를 가든 하는 것이 정말 좋겠다. TGV MAX를 구독할 생각이 없다면 OMIO라는 앱을 깔고 자신이 가고 싶은 도시를 검색해보면 저렴한 가격에 블라블라 버스나 플릭스 버스 등을 타고도 여행을 다닐 수 있다. 나는 버스를 많이 애용했다. 버스가 크고 기사님들도 다 착하시고 체계적이고 아주 괜찮다! 다만 강제 취소되거나 딜레이 되는 일이 종종 있다.

프랑스에 오기 전 설렘 반과 걱정 반이었지만, 막상 오고 나면 적응이 너무 잘 되어서 프랑스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빵을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순간이 온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너무 걱정만 안고 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심지어 프랑스인들이 우리에게 길을 물어보기도 한다. 스스로 4개월을 알차게 보낼 계획만 잘 하고 온다면 짧다면 짧은 이 4개월의 경험과 기억들이 평생 추억할 수 있을 만큼 좋을 것이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전채원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 문화예술경영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MSSU(Missouri Southern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1월 25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 내용

#### 1. 학교 시설 및 동네 정보

MSSU는 미국 미주리주 조플린에 위치했습니다. 강의실 건물과 기숙사 건물이 도로 하나 사이로 나뉘어져 있고, 규모는 그리 크진 않습니다. 제가 파견되었을 당시엔 약 30명으로 국제 학생이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현지 학생들은 학업 수준이 크게 높지 않지만, 국제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시설이 무료로 열립니다. Gym의 시설은 정말 좋고 그곳에서 운동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필라테스, 요가 등의 운동 프로그램들도 무료입니다. 수영장이나 테니스 탁구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도 4층으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2층에 무료로 음식을 가져갈 수 곳도 위치해 있습니다. 여성용품이나 간식, 유제품 등 다양한 음식들이 있으니 마트에서 사지 마시고 도서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골이라서 차 없이는 학교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가면 주유소에 있는 lion stop을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30분 정도에 작은 NorthPark mall도 위치했습니다. 생각보다 동네가 작아서 근처 쇼핑몰을 국제 학생끼리 가면 MSSU학생이냐고 묻는 주민분들도 많았습니다. 아시안 마켓이 몇 군데 위치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월마트에 데려다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월마트에도 아시안 푸드가 있어서 딱히 아시안 마켓을 자주가진 않았습니니다.

조플린은 자연이 정말 예뻐니다. 특히 저녁에 일몰이 정말 예뻐니다. 날씨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있던 8월-12월까지의 날씨를 말해보자면, 8월부터 10월초까지는 덥고 습하며 11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정말 강합니다. 미국에서 지낼 때 놀라웠던 점은 에어컨을 정말 강하게 튕니다. 강의실과 방 모두 여름에는 에어컨을 추울 정도로 틀어서 외투를 항상 입고 다녔습니다. 11월부터 추워질 땐 히터를 강하게 틀어서 습하고 감감할 정도였습니다.

#### 2. 학교 내 활동

MSSU에 입학하면 국제 학생들과 먼저 만나게 되고 그 학생들과 OT부터 여러 학교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International club에 자동적으로 함께 하게 되며 그 안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주말에 클럽 주도하에 주변에 놀러가기도 하며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친구들끼리 공유하기도 합니다.

Host family와 conversation partnership 활동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좋은 분

들이시지만, 그 분들에게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활동 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불복입니다. 교회에서 오셔서 전도하시려는 분들도 계셨고, 자주 보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 다. 여행 때문에 혹은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마트에 픽업을 부탁드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Host family**와 **Thanksgiving day** 같은 미국 명절을 같이 보내거나 조플린 시내에서 행사가 있을 때 함께 했습니다. **Conversation partnership**의 경우 제가 있던 학기 중 에선 파트너십에 지원한 현지 학생보다 국제 학생이 더 많아서 신청하더라도 매칭이 되 지 않았습니 다. 이 경우에 **ESL**을 수강하는 학생들 먼저 매칭을 해주고 이후에 나머지 학생들을 매칭해주었습니다.

**Host family**와 **conversation partnership**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한 학기 내내 이 분들 덕분에 재밌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 다. 이 분들은 국제 학생에게 관심이 많아서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 들에게 한국을 알리거나 소개할 수 있는 선물을 챙겨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3. 기숙사 정보

기숙사는 **apartment(2인, 4인)**, **east hall(4인)**, **lion village(1인, 2인, 4인)**, **quad(4인)**이었습니다. **Apartment**는 부엌이 없고 화장실이 한 개입니다. 2명이 살기엔 적당하지만, 화장실 때문에 4명이 살기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apartment** 건물 이 노후해서 제가 있던 학기엔 온수가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건물 에 세탁기가 없어서 **lion village**로 매번 가야 합니다. **East hall**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냈는데 그만큼 시끄럽기도 하고 복도에서 대마 냄새도 자주 났습니 다. 모든 방이 4 인실로 화장실이 2개이며 부엌이 없습니다. 저는 **east hall**에 살았는데 부엌이 없는 문 제 빼고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Lion village**도 많은 학생들이 살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 제일 깨끗합니다. 각 층마다 세탁실이 두 개씩 있습니다. 1인실과 2인실은 복도에 위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고, 냉장고가 없습니다. 4인 실은 각 방 마다 화장실과 부엌에 있습니다. **Quad**는 각 방안에 세탁기와 부엌이 있습니 다. 공통적으로 **lion village**, **east hall**의 경우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대마 냄새가 나는 경우가 태반이고, 시끄럽긴 합니다. 복도 냄새 같은 경우는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참으셔야 되긴 합니다. 한학기에 두 번 정도 **RA**가 방검사를 합니다. 룸메이트 간의 상 의 하에 방에 친구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이때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도 있 지만, 그런 걸 싫어하시면 1인실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4. 식사

교내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은 카페테리아와 본관 빌딩에 위치한 라이언덴입니다. 카페 테리아는 신청한 mealplan을 먹는 곳이며 일주일에 5회, 10회, 15회 정도로 나뉘져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음식은 먹을 만합니다. 초반엔 너무 짜고 달다고 느꼈는데, 카페테 리아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음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었습니다. 보통 국제 학생들은 10회 정도 하고, 방에 부엌이 있는 친구들은 직접 자국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라이언덴은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wings, 커피 등을 파는 곳이고 입 학하면 \$100달러 정도가 학생증 카드에 들어갑니다. 그 돈은 학비에 자동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 돈을 다 쓰기가 어려워 꾸준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가리지 않고 뭐든 잘 먹는 편인데, 생각보다 음식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예 민하신 분들이라면 부엌이 있는 기숙사에 가서서 직접 해먹는 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 니다.

### 5. 교내 수업

저는 **ESL**을 들어야 하는 코스로 와서, 오자마자 시험을 봤습니 다. 학교에서 정한 점수 이상이면 담당 교수님과 상의 하에 **ESL**을 수강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ESL** 수업을 들 인 않았지만 청강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ESL**은 회화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수업이 기 때문에 보통의 한국학생들은 많이 쉽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아 두 셔야 할 것이 회화와 텍스트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회

화에 자신감이 없다면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총 네 개의 수업 **art appreciation, crime scene investigation, economics of social issues, theatre history literature**를 수강했습니다.

**Art appreciation** 수업은 교양으로 보통 1학년 학생들이 수강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몇 없는 대형 강의입니다. 여러 작품을 보며 표현된 기법이나 작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교수님마다 다르지만 팀플이 없었고, 4번의 시험을 보고 4번의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강의는 한학기 동안 4번의 시험을 봅니다.

**Crime scene investigation** 수업은 말그대로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수업입니다. 이론 강의도 듣고, 교수님이 만들어 두신 범죄현장을 조사하는 실습도 진행합니다. 범죄 용어가 어렵다고 느꼈지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매주 프린트물 퀴즈를 주셨고, 4번의 시험을 봤습니다. 이 강의의 경우 한 강의실의 15명의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모의 범죄 현장을 조사해야 하는 수업이라 학생들 간의 소통이 많았고, 가볍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Economics of social issues**은 경제 관련 기초 용어와 세계 이슈를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꼼꼼하신 편이며 국제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주시고 따라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주 과제와 퀴즈가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총 4번의 시험을 봤습니다.

**Theatre history literature**은 연극과 고학년 수업으로 연극의 역사와 고전 문학을 배웠습니다. 관심있는 분야라 신청했지만, 고학년 수업이라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 강의의 경우 6명의 소수 정예 수업으로 교수님이 일반적인 강의를 하시기보단 학생들 간의 토론이나 활동이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플린에 위치한 조플린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고 레포트를 쓰는 과제, 고전 문학을 재해석하는 과제 등이 있었습니다.

## 6. 교우 관계

국제 학생에게 관심있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관심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국제 학생으로 들어가면 **international club**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클럽 안에 친구들과 친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지 학생들과 친해지려면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룸메이트와 친해지는 것이 가장 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방을 쓰면서 생활패턴을 조율하며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행사가 있을 때 카풀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친해지지 말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거리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지에서 조금씩 예민해지기 마련이고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게 한국인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힘들 수 있습니다.

## 7. 느꼈던 점

공부만을 목적으로 교환학생에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얻었던 것은 경험이 가장 큼니다.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던 것과 달리 현지 학생이나 현지인들이 생활하고 생각하는 것을 느끼면서, 식견이 넓어진 것 같긴 합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졌습니다. 현지 학생도 있지만, 국제 학생들을 만나면서 관심이 없던 나라에 관심이 가기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가짐이라고 많이 느낀게, 항상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다가가야 그만큼 얻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 SSAP 참여보고서

성명	백지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1학번 지적재산권전공
파견시기	2023 학년도 2학기
참가프로그램명	어학교환학생(학기중)
자매교명	Stony Brook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제출일	2024 년 1월 14일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 대한동의	<p>본보고서의제출과함께포함될수있는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합니다.</p> <p>(1) 수집및이용목적: 참여후기수집및공개용</p> <p>(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p> <p>(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p> <p>(4) 개인정보수집/이용의거부가가능하며, 거부시학점인정불가및장학금환수</p>

### 내용

#### 1. 학교&어학프로그램

저는 2023학년도 2학기에 미국에 있는 Stony Brook University로 어학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Stony Brook University는 미국 뉴욕 주 스토니브룩에 위치한 뉴욕 주립대학교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는 어학교환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정규 수업이 아닌 IEC라는 어학프로그램을 수강하였습니다. IEC에서는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과 같은 기본적인 어학 수업과 enrichment class라는 수업을 통해 grammar, pronunciation, American culture 등과 같은 어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수업들도 함께 진행합니다.

저는 교환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안전과 학교 위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스토니브룩을 선택하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지내면서 학교와 근처 치안은 좋은 편이라고 느꼈고, 뉴욕 맨해튼까지 기차로 편도 2시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학업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하기 좋았습니다. 학교에 국제 학생들이 많은 편이고 한국인도 정말 많습니다. 한국인이 많다는 점이 단점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학교와 현지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 한 학기를 더 알차게 즐기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IEC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제가 다녀온 학기에는 103, 104 총 두 개의 반이 있었습니다. 각 반에 1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고, 중국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매일 숙제가 있으나, 어렵거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테스트와 발표가 자주 있는 편이고, 발표 수업이 영어에 익숙해지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학교환은 IEC프로그램을 듣기 때문에 다양한 동아리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현지 학생을 사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English pal 동아리에 가입하여 현지 친구와 친해질 수 있었고, 현지 친구와 친해지면서 다른 친구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숙사 내에도 다양한 행사가 있고 같은 층 친구들과도 자주 마주치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면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습니다.

#### 2. 기숙사&밀플랜

기숙사의 경우는 저는 1인실을 신청하였고 Keller college에 배정되었습니다. 학교 내 다양한 기숙사가 있지만 대부분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기숙사 주변에는 west dining hall과 카페테리아가 있어서 밀플랜을 사용하기에 용이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건물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었기에 학교 버스를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밀플랜의 경우는 unlimited plan을 신청하였습니다. unlimited plan은 dining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 충전된 dining dollar를 이용해서 학교 내 스타벅스나 푸드트럭 등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하루 1회 카페테리아에서 meal exchang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ning 음식은 반복되어 나오는 편이라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졌지만 학교 내 다양한 식당과 카페테리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unlimited plan을 만족하면서 사용하였습니다.

#### 3. 생활&여행

학교에 도착한 날이나 그 다음 날 학생증을 만들게 되는데 이 학생증으로 밀플랜을 사용할 수 있고 기숙사 출입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이 학생증으로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버스를 통해서도 학교 주변 포트 제퍼슨이나, 일요일에는 쇼핑 루트로 타겟과 같은 마트에 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교 행사가 자주 다양하게 열립니다. 학교 이메일과 **corq**라는 앱을 통해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볼 수 있고, 올피랜드와 같은 규모가 큰 행사는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학교에서 맨해튼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한 학기 동안 뉴욕 곳곳을 다녀올 수 있고, **fall break**과 종강 후 시간을 잘 계획하면 뉴욕 외에도 다양한 지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 4. 마무리

한 학기 동안 새로운 곳에서 지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통해서 파견 전 비자준비부터 파견 후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시험을 위한 리스닝만이 아닌 여러 나라의 영어 억양을 듣고 익숙해질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홍희정
학번(연도만) 및 전공	21학번 경영학부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Arkansas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1월 15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1. 수업정보 (어학)

필자는 어학교환학생의 자격으로 ESL이라는 ASU 내 어학당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ESL에는 한국인이 없었다. 일본인, 베트남인, 중국인 그리고 아프리카 학생들이 많았다. ESL은 타 미국대학교 혹은 ASU를 입학하기 위한 아카데미 수업 중심이고, 5개의 레벨제로 운영된다. 필자의 경우는 국제학생 오티 이후 레벨테스트를 봤다. 회화 경험 전무에 수능영어 2등급 수준인데 레벨 4에 배정됐다. (최고레벨은 5이다.) 강의는 총 세 종류 (Reading & Vocab, Grammar & Writing, Listening & Speaking)이고, 학기가 두 세션으로 나뉘어져 두번째 세션 때 레벨5 수강하고 ESL 졸업하고 왔다. 기본 문법부터 독해, 영어 듣기 지문 메모하는 방법, 프레젠테이션, 아카데미 에세이 쓰는 방법이 수업 주 내용이다. 발표나 에세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해도 괜찮은 점수 나온다. 수업은 고등학교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진행되고, 과제도 거의 매일 있어서 일반 교환학생들보다 노는 여유가 부족하긴 하다. 성취도 평균 80퍼센트 이상이어야 Pass나와서 학점 받을 수 있다. 한 세션 당 3번 결석 시 제적 처리된다.

스케줄은 조금 빠듯했지만, 평일 내내 영어만 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서 영어가 많이 늘었다.

Tim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9:00 - 10:00 a.m.	Self-Study Class S212	Self-Study Class S212	Self-Study Class S212	Self-Study Class S212
10:10 - 12:10 p.m.	Grammar/Writing Mrs. Kimberly Brady Room N232	Reading/Vocabulary Ms. Renee Sumler Room N342	Listening/Speaking Mrs. Kimberly Brady Room N232	Grammar/Writing Mrs. Kimberly Brady Room N232
12:10 - 1:20 p.m.	Lunch	Lunch	Lunch	Lunch
1:20 - 3:20 p.m.	Listening/Speaking Mrs. Kimberly Brady Room N232	Grammar/Writing Mrs. Kimberly Brady Room N232	Reading/Vocabulary Ms. Renee Sumler Room N342	Listening/Speaking Mrs. Kimberly Brady Room N232

Note : open tutoring and computer lab hours are Monday - Thursday from 3:30 - 5:00 p.m. in room S212

Friday

8:15 - 10:15 a.m.	Week 1 (10/20) Week 2 (10/27) Week 3 (11/3) Week 4 (11/10) Week 5 (11/17) Week 6 (12/1)	Grammar/Writing Class - Mrs. Kimberly Brady - Room N232 Listening/Speaking Class - Mrs. Kimberly Brady - Room N232 Reading/Vocabulary Class - Ms. Renee Sumler - Room N342 Grammar/Writing Class - Mrs. Kimberly Brady - Room N232 Listening/Speaking Class - Mrs. Kimberly Brady - Room N232 Reading/Vocabulary Class - Ms. Renee Sumler - Room N342
10:15 - 10:30 a.m.	Break	
10:30 - 12:30 p.m.	Reading/Vocabulary Ms. Renee Sumler Room N342	

ESL 시간표는 다 짜여서 나온다.

## 2. 학교 후기

### A. 위치(공항)

필자는 인천에서 출발해 시애틀, 살럿 경유하고 멤피스 공항으로 갔다. 왕복으로 비행기 표 구매해도 돌아오는 날짜 변경가능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저렴하고 좋은 것 같다.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공항은 멤피스 공항이고, 학교와 공항 셔틀버스도 멤피스 공항에만 제공된다.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차로 한시간 반 정도 걸린다. 지원서 접수 후 담당자에게 셔틀버스 예약 관련 메일 수신한다. 그리고 지원 시 학생 메일이 생성되는데, 이 곳으로 많은 공지 메일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셔틀이 비행기 시간 지나가면 안 기다려주고 사라지기 때문에 본인 비행기시간보다 더 여유 있는 시간을 학교측에 얘기하는 게 낫다.

### B. 인프라

교내 시설은 나쁘지 않다. 스타벅스, 아인슈타인 베이글, 칩필레, 피자가게, 버거가게 등이 있다. 교내에 있는 가게들은 밀플랜에 포함된 플렉스로 결제 시 텍스프리아다. 학교 바로 뒤편 서브웨이, 맥도날드, 북스토어 있는데 여기는 플렉스 사용 불가이고, 이 주변은 조금 위험하다고 소문이 나서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ASU에서 국제 학생들을 위한 시내 셔틀버스를 제공해준다. 학교 웹사이트에서 예약 가능하고, TJ max, Walmart, Ross, Target 등 쇼핑하러 다닐 수 있다.

## 3. 기숙사

교환학생들은 freshmen으로 분류되어서, 선택가능한 기숙사 중 최선은 North Park Quads(NPQ)이다. 개인 방 있고 다른 한 명과 욕실만 공유한다. 그러나 주방이 없고 냉장고도 제공되지 않음. 가장 안 좋은 점은 Thanksgiving break(추수감사절 1주일 휴가) 동안 기숙사에 출입하고 싶다면 약 300불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학기 초에 CP라는 아파트로 옮기는 것을 추천한다. CP는 조금 더 저렴하고, 주방이 있고, 냉장고도 제공되며, 돈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일은 없다. NPQ와는 다르게 CP 클럽하우스(세탁실 건물)에는 전자레인지도 있어서 구매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여기서 사용 가능하다. 한 한국 교환학생은 일단 주방이 꼭 필요하다고 어필해서 기숙사 체크인 당일 바로 CP로 변경했다.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당일은 굉장히 사람도 많고 복잡했다. 필자는 하우스 팀에 항공편 사정을 잘 얘기해 존즈보로 호텔에서 하루 묵고 하루 일찍 얼리 체크인을 했다.

밀플랜은 보통 7days+350flex 옵션 선택함. 필자는 혼자 식사 챙길 자신 없어서 7days로 학기 내내 다이닝홀에서 식사함. CP로 이사한 사람들은 요리가능하기에 하우스 팀이랑 연락해서 All flex나 Block(다이닝홀 식권)+some flex로 변경한 경우도 많았음. 돈이 없음을 어필한 경우가 많다. 플렉스는 스타벅스에서 음료 구매는 당연하고 상품 구매 시에도 사용 가능하다. 학기 끝나갈 즈음 남으면 Campus Store에서 기념품으로 간식 사가면 된다.

필자는 NPQ에서 한 학기 내내 살았는데, 한국에서 3만원하는 전기장판 사값음에도 방이 추워서 굉장히 힘들었다. 다수의 미국 룸메이트들은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고생했다. 버티지 말고 초기부터 아마존에서 히터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 4. 기타 팁

학생 이메일 계정 있으면 아마존 프라임 무료체험이 가능하다. 택배 받으려면 학교 우체국에서 P.O Box 구매해야 하는데 한 학기에 약 80불이다. 원래는 최대 2명 공유 가능이지만, 한국 교환학생들 10명에서 열쇠 두개로 공유했다.

필자는 이번이 첫 해외 경험이라서 쉽지는 않았다. 잘 모르겠다면 항공편이나 기숙사 등 지원을 하는 시기에 같이 파견 가는 우리학교 학생들과 최대한 빨리 연락해서 함께 상의하면서 하면 참 편한 것 같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유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경영학부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
자매교명	LCU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4년 01월 28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2023년 2학기 프랑스 리옹 카톨릭 대학교로 한학기 어학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본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에 대한 느낀점을 솔직히 기술하자면, 타 학교에 비해 교환처의 역할이 적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타 학교에서는 같은 대학교에 파견된 학생들과의 정보 공유 및 여러 이유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SNS 채팅방을 활성화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주지만 상명대의 경우 파견되는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SNS 오픈채팅을 열어 질문하고, 서로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이 잘 되지 않았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더해, 파견교에 대한 정보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이후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적인 부분에 대해 말해보자면, INTENSIF 코스를 수강하였고 개강 전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반을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서 DELF A2를 취득했고 추가로 어학원을 통해 B1을 공부했던 상태였습니다. 현지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이 한국에서 배우는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고 수업에 참여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만 느낀 부분이 아니며, 타 학교 학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로 수업의 이해도 또는 참여도를 위해 예를 들어, 이미 DELF B1이 있더라도 파견시 B1수업을 듣는 것이 수업을 따라가기에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분반마다 다르지만 최대 8번의 중간고사와 한번의 파이널 시험으로 성적이 나오게 되고, 디플롬을 받을지에 대한 큰 비중은 파이널 시험으로 중간고사는 작은 쪽지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출석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중간고사 성적이 평균이하, 결석 약 40회 정도였지만, 파이널 시험 패스로 디플롬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파이널 시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파이널 시험만 잘 준비하면 디플롬 걱정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참여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해당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원하는 행사를 신청하면 선착순 참여가 가능하기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거나 혼자 가는 학생들도 걱정 없이 친구들을 사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기숙사 부분에 대해 얘기하자면 UCLY 소속 기숙사는 2개이고 저는 BERNARD 기숙사에 거주했습니다. 다른 기숙사에 비해 더 좋은 시설이지만, 방이 좁고 10시에 출입이 통제되는 부분, 12시에 주방 문이 닫힌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 이후 출입이 통제된 이후에는 아끼이를 통해 출입문을 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키를 검사하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방에는 비행기 화장실 크기의 화장실, 에어컨, 냉장고, 침대, 수납 공간 등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른 기숙사의 경우 공용 화장실 및 샤워실, 각 층이 아닌 다른 층에 있는 공용주방 사용, 에어컨 없음 등 생활하기에 조금 더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조금 가격대가 더 있더라도 BERNARD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숙사 또는 끌로까시옹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적인 부분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PERRAHCE에서 도보 10분, CONFLUENCE 도보 20분 등 중요한 곳을 가기에 도보, 메트로, 트램, 버스 등 원하는 수단을 통해 편하게 갈 수 있고, 주변에 U EXPRESS, FRANPRIX 등 마트가 있어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불편함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쉬웠던 부분(개선되었으면 하는 것), 학업 관련, 생활 관련된 것에 대한 저의 경험

을 적어보았습니다. 이후 다른 학생들이 리옹 카톨릭 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될 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문지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3 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리옹카톨릭대학교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1 월 20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내용

저는 프랑스 리옹의 리옹 카톨릭 대학교에서 어학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의 모든 공지사항은 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비자와 관련한 서류를 메일을 통해 학교에 물어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했습니다.

프랑스에 입국하기 전에 레벨테스트를 봐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초보자 그룹부터 C1 그룹까지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수업을 듣는 첫 일주일만 반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은 오전반(오전 8시~오후 12시)과 오후반(오후 1시~오후 5시)으로 나뉘었고 저는 오후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은 교재를 활용해 독해, 듣기, 작문, 말하기 등 기초적으로 DELF시험에 기반한 수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의 수업은 문법이나 어휘에 집중된 한국의 수업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문법이나 어휘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정규수업은 수요일을 제외한 주중에 이뤄졌습니다. 저는 집중 강의 코스를 신청했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4시간의 쓰기와 말하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요일 수업은 집중 코스이기 때문에 성적에 들어가는 시험은 없었습니다.

수업과 별개로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리옹 시티투어, 와이너리 투어, 미술관과 시청 투어 등 리옹에 처음 온 학생들을 위한 외부활동이 많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글로벌 행사가 있었습니다. 카톨릭 대학인 만큼 크리스마스나 새해, 성모 마리아의 날 등의 기념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Saint-Bernard에서 지냈습니다. 1인실이였으며, 각 방에는 화장실과 침대, 냉장고, 책상과 의자 그리고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했으며 각 층에 2개씩 있습니다. 공용시설은 주중에 매일 청소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홀로 지내는 경험이었는데 체계적으로 짜인 어학수업과 학교와 연계된 안전한 기숙사에서 유럽이라는 조금 낯선 곳에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프랑스에 머물며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참여할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배서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0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 학년도 하계방학 동계방학 2학기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단기언어문화연수(방학 중)
자매교명	Université catholique de Lyon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4년 01월 29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프랑스에 있는 리옹 가톨릭 대학 어학원에서 10월 09일부터 1월 26일까지의 수업을 들었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총 4시간동안 A1반에서 프랑스어 기초 문법, 말하기 등의 수업을 이수했다. 테스트를 통해 본인 실력에 맞는 반을 고를 수 있었다.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모든 수업은 프랑스어로 진행되었다. 시험은 델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A1반은 델프 A1, A2 두개의 시험을 봤다. 마지막 시험 이외에 수업 중간중간 쪽지시험을 보았다.

교재와 교외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수요일은 여러 반의 사람들이 모인 반에서 진행되는 수업이 이루어졌다. 실력이 다 다른 사람들과의 수업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프랑스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학기 중간 방학은 총 2번이 있고, 일주일과 2주 정도의 기간동안 방학이다.

학기 중 아쉬웠던 점은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이 나뉘져 있다는 점이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분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했다. 오전 고정이 아닌 오전과 오후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어학교환 이전과 이후의 프랑스어 실력을 비교해보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고, 학교 시험을 통해 델프 A2 통과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한국에 돌아가 델프 B1을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본교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정보를 얻는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 부분이 개선되어 다음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어학교환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리옹과 다른 프랑스 지역을 돌아다니며,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프랑스 이외의 여러 국가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배서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0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 학년도 하계방학 동계방학 2학기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단기언어문화연수(방학 중)
자매교명	Université catholique de Lyon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4년 01월 29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프랑스에 있는 리옹 가톨릭 대학 어학원에서 10월 09일부터 1월 26일까지의 수업을 들었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총 4시간동안 A1반에서 프랑스어 기초 문법, 말하기 등의 수업을 이수했다. 테스트를 통해 본인 실력에 맞는 반을 고를 수 있었다.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모든 수업은 프랑스어로 진행되었다. 시험은 델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A1반은 델프 A1, A2 두개의 시험을 봤다. 마지막 시험 이외에 수업 중간중간 쪽지시험을 보았다.

교재와 교외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수요일은 여러 반의 사람들이 모인 반에서 진행되는 수업이 이루어졌다. 실력이 다 다른 사람들과의 수업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프랑스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학기 중간 방학은 총 2번이 있고, 일주일과 2주 정도의 기간동안 방학이다.

학기 중 아쉬웠던 점은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이 나뉘져 있다는 점이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분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했다. 오전 고정이 아닌 오전과 오후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어학교환 이전과 이후의 프랑스어 실력을 비교해보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고, 학교 시험을 통해 델프 A2 통과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한국에 돌아가 델프 B1을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본교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정보를 얻는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 부분이 개선되어 다음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어학교환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리옹과 다른 프랑스 지역을 돌아다니며,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프랑스 이외의 여러 국가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송서영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프랑스어지역학 전공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부터 2024년 동계방학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1학기)
자매교명	리옹 카톨릭 대학교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4년 01월 17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저는 10월부터 1월 말까지 리옹 카톨릭 대학교에서 어학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리옹 카톨릭 대학교를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어학원을 다녀왔습니다. 2 번째 리옹이기에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상명대학교를 통해서 온 거라 동기들과 함께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어학연수 때 느꼈던 외로움은 절대 느낄 수 없었고 매일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프랑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레벨테스트를 통해 반을 지정받습니다. 만일 지정받은 반이 본인 수준에 너무 높거나 낮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 동안 수업을 들어보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언어를 위한 수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외 활동들을 주체하는 것도 인상깊었습니다. 리옹 카톨릭 대학교에는 한국어 학과가 실제로 존재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싶어 하는 프랑스 학생과 어학생인 저희와 함께 모여 대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방과 후에도 프랑스어 영화를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랑스의 기념일에는 무엇을 먹고 하는지에 관한 유레 등등 언어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문화도 배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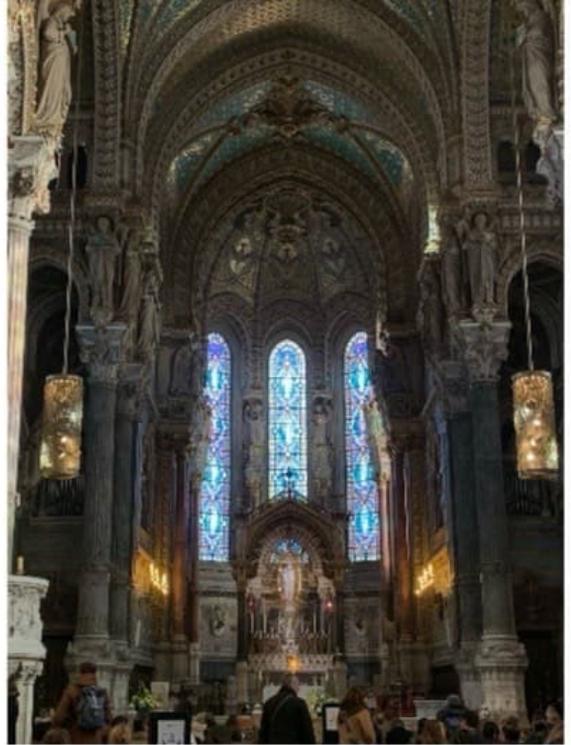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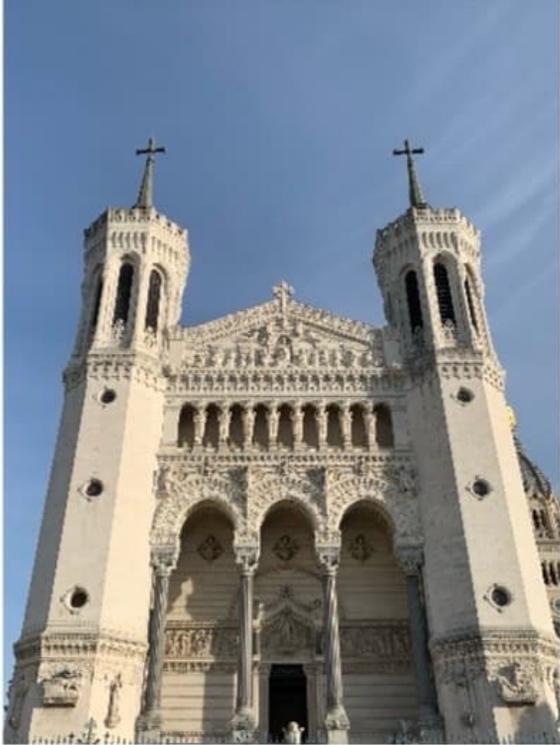
또한 학기 초에 리옹 전체를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학교에서 제공합니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초반기에 리옹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Musée des Confluences"에 모두가 방문합니다.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초반에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류학, 과학에 관한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가 열리는 박물관으로 인기를 얻고있습니다. 박물관 분위기가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외관이 돋보여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로서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가보지 않았을텐데 학교에서 주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리옹 카톨릭 대학교에 수업과정은 매주 4시간 수업을 들으며, 쪽지시험을 총 8번을 보고 1월 중순에 기말고사로 DELP와 유사한 시험을 치르게됩니다. 쪽지시험 30% 기말고사 70%로 마지막 시험을 집중해서 치뤄야합니다.

어학연수 기간 중에는 방학이 총 2번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일주일 간, 12월 말 부터 1월 초까지 2주간 총 3주라는 방학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다양한 유럽국가를 저렴한 비행기 값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주말이면 리옹에서 가까운 지역을 관광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유럽국가들을 다니며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 Basilica of Notre-Dame de Fourvière



▲ Vieux Lyon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신혜영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 환경조경학과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LCU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4년	01월	30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내용

저는 프랑스어 비전공자로 프랑스어 교양 수업과 인터넷 강의를 통해 A1~A2 사이 수준의 프랑스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어에 대한 배움과 유럽의 문화를 체험하고자 교환학생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견된 ILCF는 UCLY대학교의 부속 어학원으로 다양한 나라, 연령, 직업의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먼저 ILCF는 10월 초에 학기를 시작하여 11월, 크리스마스~신년 시즌에 바캉스 기간을 2회(약 20여일)을 가지고 1월 말에 학기를 마감합니다. 타 학교와 달리 학기를 늦게 시작하고 늦게 마치는 점이 향후 한국에서의 일정과 맞지 않고 바캉스 기간이 길어 실제로 학교에 가는 기간이 적다는 점이 부정적인 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캉스 기간을 통해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어 긍정적으로 느꼈습니다.

학교는 리옹 생텍쥐페리 공항에서 우버 8만원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학교 연계 기숙사인 **students houses st bernard**와는 도보 15분의 거리에 위치합니다. 또한 학교 바로 앞에 리옹에서 다른 도시(파리 등)에 갈 수 있는 역인 **lyon perrache**역이 위치하여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또 두 개의 캠퍼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학원 학생은 주로 가까운 **carnot**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다른 캠퍼스에서 수업을 한 적이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 찾아본 결과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시 다른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학기 시작 전 학교에서 메일을 통해 온라인 테스트가 날라와 이를 통해 반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기 시작날 **uclly** 학교 어플을 통해 반배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출석체크, 수업정보 등)이 어플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매우 편리했습니다. 수업자료 또한 구글 팀즈를 사용함으로 프랑스의 아날로그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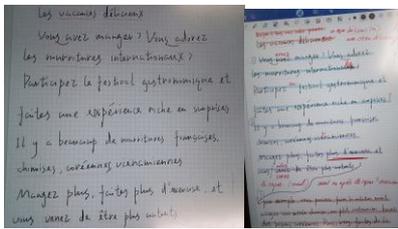


저는 처음에 생각보다 높은 반에 배정되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학기 시작 첫 둘째 주에 담당 선생님의 평가와 상담을 통해 조정하게 됩니다. 둘째주부터 **group1**로 바꾸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월, 금요일 담당 선생님 한 분, 수, 목요일 담당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수업은 크게 독해, 작문 구술, 듣기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속한 그룹에서 사용한 책은 두 권으로 위 사진과 같습니다. **Group1**은 A1수준의 그룹으로 처음엔 숫자, 요일 아주 기초부터 배웁니다.



학기 초반엔 선생님이 학생들에 "당신은 몇 살 인가요?" 수준의 질문을 던지면 학생이 대답하는 형식에서 수업을 통해 문법과 여러 주제와 상황에 맞는 단어, 표현들을 배우고 나서 후반엔 "당신이 열고싶은 축제에 대해 말해보세요"같은 주제를 주고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 대화를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바캉스 기간을 보낸 뒤엔 바캉스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작문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실제로 사용하는데 용이하고 일상과 밀접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프랑스어를 공부하며 무언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떨어진 교과서적인 공부를 하고있다 느꼈었는데 이곳에 와서 당장 밖에 나가 사용할 수 있고 프랑스인들이 쓰는 표현을 배운다는 것이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짧고 어렵지 않은 문장이지만 제가 직접 프랑스어로 문장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어본다는 것이 뿌듯하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쪽지시험같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날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고 테스트 전에 미리 공지를 해주어 부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진행한 테스트와 1월 중순의 이틀간의 시험을 통해 성적이 나옵니다. 최종 시험은 쪽지시험과 유사하였고 마지막 구술시험은 주제 두 개를 뽑고 그 중 하나를 골라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뽑은 주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기>였습니다. 준비시간을 주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어 다행이라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선생님이 그의 직업, 그가 좋아하는 것 등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어려웠던 점은 선생님들이 가끔 필기체를 사용할 때가 있으신데 무슨 단어인지 알면 우추할 수 있으나 기초반 특성상 모르는 단어가 많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 어려웠습니다. 또 어느 날 한 번 수업중에 비상경보가 울리면서 갑자기 교실에서 나가라며 나갔더니 교내에 있던 모든 학생이 학교밖으로 대피하고 경찰이 출동해 폴리스라인이 쳐졌던 날이 있는데 영문도 모르고 대피해야했던 상황을 떠올리면 어리둥절합니다.

사실 학기 중반에 몸이 안좋아지면서 적응하지 못 할 때가 있었는데 파견교 선생님, 사무국 직원들 등 너무 친절하셨고 교내 상담 시스템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또 리옹에 한국인이 정말 많고 같은 그룹에도 많을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들과 또 같이 간 학생들과 계속 소통하며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숙사는 한 곳이 두 개로 나누어져있는데 저는 월세가 비싸지만(원화 80만원 초중반) 최근에 리모델링하여 비교적 시설이 좋고 에어컨이 있는 **students houses st bernard**를 선택하였습니다. 1인실에 개인 화장실, 샤워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학교와 도보 15분 리옹 페라슈역과 20분 밖에 안되지만 주변에 식당과 마켓 등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20분정도 걸어가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문에 새벽에 페라슈역에서 내려 걸어와도 안전하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공용주방이 있고 방 안에 미니냉장고가 있어 조리가 편합니다.

기숙사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은 일단 방이 매우 좁다는 것 입니다. 기본 제공되는 이불은 훌겁의 담요재질이고 방 안에서 전기매트와 기타 온열기구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오직 에어컨으로만 난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에어컨이 중앙난방이며 일정온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 공기가 차갑고 갑자기 뜨거운 바람 대신 찬바람이 나온다면 갑자기 전원이 꺼져 자다가 덜덜 떨며 일어나는 상황이 매일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저는 이곳에 머무는 4달동안 심한 감기에 3

번 걸리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콩플루엥스에 가서 두꺼운 이불을 마련하는것이 좋습니다.

교환학생을 하면서 주말이나 바캉스 기간을 통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시 사무국이나 선생님에게 말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유럽에 처음 방문하였는데 한국과는 전혀 다른 건물, 문화, 음식을 보고 충격과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여러 인종을 만나며 한국이라는 단일민족 국가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체감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뜻깊었던건 여행중에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입니다. 이를 통해 나도 앞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면서 가장 걱정했던건 미숙한 언어능력과 인종차별이었는데 오히려 미숙하지만 용기내어 사람들에게 질문함으로써 대화가 통하면 용기도 가지게 되고 배움에 대한 의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실력이라도 시도하니 의미도 잘 통하고 괜찮았습니다. 다행히 인종차별은 제가 느끼기엔 당한적이 없으며 대체로 친절하였고 안 친절한 사람은 있었어도 불친절한 사람은 마주치지 못하였습니다.

교환학생을 마무리하며, 제 인생에서 비자를 받아 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장기간에 해외에서 체류하며 외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교환학생이 유일하다 생각했고 그리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점 또한 많았습니다만 이를 통해 깨닫고 배운점이 더 많다 생각합니다. 부족한 언어 실력에 자극받아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실용적인 언어공부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 전공적인 면에서 수업시간에 배우며 사진으로만 봤던 역사적 공간들을 눈으로 직접 보며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윤지원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19 글로벌지역학부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단기언어문화연수(방학 중)
자매교명	LYON CATHOLIC UNIVERSITY
국가	FRANCE
보고서 제출일	2024년 01월 28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저는 10월달에 프랑스 리옹으로 어학교환을 왔습니다. 학교 개강은 10월 9일이었기 때문에 10월 5일쯤 도착하여 Saint-Bernard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Sain-Bernard 기숙사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정도 거리로 매우 가깝습니다. UCLY는 캠퍼스가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수업을 들었던 캠퍼스는 Carnot 캠퍼스이고, Perrache역 터널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면 있는 게 Saint Paul 캠퍼스입니다. 4개월 동안 느낀 리옹의 계절은 따듯했습니다. 10, 11, 12월까지는 추운 날이 손에 꼽고 거의 따듯했고 1월부터는 조금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들보다 리옹이 정말 따듯한 것 같았습니다. 개강하기 전에 UCLY 앱에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미리 봤던 레벨테스트의 결과대로 반 배정이 나왔습니다. 반은 총 20개반이 있고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뉩니다. 오전반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고 오후반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4시간 수업을 듣습니다. 선생님은 한 반당 두 분이고 월화 수업과 목금 수업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하루에 4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2시간 수업을 하고 중간에 20분정도 쉬는 시간을 주고 다시 남은 2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오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항상 간식을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먹었습니다. 0층에 매점도 있어서 다들 매점에서 샌드위치나 빵, 커피 등을 많이 사 먹었습니다. 또한 저는 수업을 semi-intensive가 아닌 intensive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존 월, 화, 목, 금 수업과 수요일 수업까지 추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강주부터 바로 수요일 수업이 있진 않았고 3주차 정도부터 수요일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수요일 수업도 정규 수업과 마찬가지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는데 정규수업에서 오후반을 들었던 사람이 수요일 수업은 오전반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오전반 수업이어서 5일 내내 아침 8시에 학교에 갔습니다. 그게 조금은 힘들었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정말 많이 남기 때문에 오전반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업 교재는 보통 책 한권과 프린트물로 진행이 되는데 책은 'Edito A2'책이고 학교에서 어떤 서점에 책이 있는지 모두 알려주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개강을 하고 일주일 동안은 반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수업을 들어보고 자신의 레벨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바꿔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땐 너무 기초적인 것을 배워서 반을 바꿔야 하나 고민했지만 선생님의 말을 다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반에 남아있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의 전반적인 문법들은 모두 전공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이어서 반을 올라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레벨보다 조금 높은 수업을 들어도 실력을 늘리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보통 말하기가 주된 수업이었습니다. 항상 지문을 읽게 시키셨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짝공과 짝 지어서 대화하고 발표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어로 말하는 게 어색했지만 모두 같은 레벨인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엉터리로 말하더라도 모두가 프랑스어로 계속 말을 하려고 해서 재밌었습니다. 또한 반 친구들과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한 반당 보통 20명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국적도, 나이도 모두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희 반은 한국인이 가장 많았고 선생님께서도 한국인끼리는 같이 짝이 되지 않게 신경 써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학은 가을방학으로 10월 말에 일주일정도 짧게 있었습니다. 개강하고 한달도 되지 않

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행을 가고 싶다면 미리 여행 계획을 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리옹은 여행 다니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파리나 프랑스 내에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면 'TGV 맥스'를 끊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리옹이 위치적으로는 어디로나 여행 다니기 좋으나 보통 버스나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버스는 값이 싸지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파리에 간다면 버스로는 약 5시간 30분 정도가 걸리고 기차로는 약 2시간이 걸립니다. 기차가 더 비싸긴 하지만 TGV 맥스를 끊는다면 파리를 한달에 2~3번만 가도 이득이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학은 겨울 방학으로 2주정도 쉬었습니다. 크리스마스과 새해가 껴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다들 여행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데 성적 비율이 중간고사는 30, 기말고사는 70으로 기말고사가 중요했습니다. 중간고사는 쪽지시험처럼 봤는데 한 선생님 당 듣기, 독해, 작문, 구술 영역으로 나뉘어 4번씩 날을 나눠 시험을 쳤습니다. 즉 시험을 8번 보는데 하루에 다 보는 선생님도 있고 날을 나눠서 보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편히 봐도 됐습니다. 시험은 겨울방학 바로 전에 중간고사를 보고 겨울방학 후 일주일 뒤에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둘 다 시험 범위는 딱히 없었고 DELF 시험을 치는 것처럼 봤습니다. 기말고사는 델프 시험처럼 이틀에 걸쳐 시험을 봤는데 듣기, 독해, 작문을 치고 다음날 구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중간고사에 비해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구술 시험은 중간고사 때는 선생님이 반 친구들과 두 명씩 짝을 지어줘서 주제를 뽑고 말하기를 했는데 기말고사 때는 각 사람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학교에 가면 주제를 뽑고 준비 시간을 10분 준 뒤, 선생님과 일대일로 시험을 봤습니다. 말을 하다 끊겨도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이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오전반 학생이든 오후반 학생이든 시험 시작 시간은 '오전'으로 같기 때문에 늦지 않게 학교에 잘 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말시험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몇 주 전부터 계속 공지도 해주시고 수업 중에도 언급을 해 주십니다.

학교 행사들은 모두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겠다고 답장을 보내면 됐습니다. 개강 주부터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이 있는데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자리가 꼭 차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다면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Global Village'라는 행사가 가장 재미있었는데 장소는 저희가 수업 듣는 Carnot 캠퍼스가 아닌 Saint Paul 캠퍼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이 행사에 신청을 하진 않았고 이 날 Saint Paul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일이 생겨 수업을 듣고 나왔다가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빌리지는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각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대만, 터키,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재밌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한국의 음식들도 선보였으면 좋았을텐데 한국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어서 한국 음식을 만들진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달에 이 행사와 비슷한 'Repas Internationaux'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50유로를 지원받고 그 돈으로 각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모여 뷔페식으로 맛볼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모여 김치볶음밥 주먹밥을 만들어 갖고 다른 나라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아주 뿌듯했고 한식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이런 다양한 행사들에 참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Global Village' 행사 사진 -



-Repas Internationaux' 행사 사진-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지수
학번(연도만) 및 전공	21학번, 글로벌지역학부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프랑스 리옹 카톨릭 대학교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4년 2월 11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1. 리옹과 프랑스에 대하여

리옹은 프랑스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프랑스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따라서 인프라이 잘 형성되어 있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한 리옹은 프랑스 내에서도 치안이 안전한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밤 늦게 혼자 돌아다니거나, 짐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지만 않는다면 특별히 소매치기나 위험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럽 국가 특성 상 이곳 저곳 여행 다니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어 교환학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탈리아와 스위스가 있어 바캉스 기간을 이용해 여행을 다니기 매우 좋습니다.

프랑스의 물가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비는 모든 것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 달에 200만원~300만원 정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 2. 리옹 카톨릭 대학교에 대하여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불어 수업입니다. 다른 교환학생들은 그 학교의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학교는 불어로 불어를 가르치는 수업을 합니다. 따라서 프랑스인들과 같은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국가에서 불어를 배우기 위해 온 학생들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활동을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참가하는 코스는 이 대학의 수업이 아니라, 대학에서 진행하는 어학당 코스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대학생활을 생각하신다면 리옹 카톨릭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시설이나 치안은 좋은 편이며, 학교 위치도 리옹 중심부에 있어 주변 환경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연결해주는 기숙사와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어 등교하기가 매우 편합니다.

수업은 주중 5일을 모두 나가야 하며,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일반 대학들처럼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5일 수업을 진행하는 코스 자체를 수강신청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긴 기간의 바캉스가 있기 때문에 지치거나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 3. 전반적인 상명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리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장점은 교환학생 참가가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학점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교환학생을 신청한 뒤, 생각보다 세세한 안내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아서 찾아봐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으로 파견 나가 있는 동안 상명대에서 학생들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랫동안 학교에 연락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상명대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마 프랑스 학교 측에서 학생의 상태에 대해 상명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거나, 같은 학교 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는지 잘 살펴보고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심민정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 문화예술경영전공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Missouri Southern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1월 31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Missouri Southern State University (줄여서 MSSU라고 하겠습니다.) 는 미국 미주리 조플린이라는 시골에 있는 학교입니다. 2023년 8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학기간 교환학생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선 조플린은 인구 5만명 정도 되는 작은 시골입니다. 차로 약 3시간 거리인 캔자스시티가 큰 도시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인데, 여기도 멀어서 한번 밖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1시간 반 거리인 스프링필드에 가서 한식당, 한인마트, 공항 등을 이용했습니다. 조플린은 작고 시골이라 놀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교통 수단도 마땅치 않아 마트를 가거나 외식을 하고 싶을 때는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부탁하면 흔쾌히 도와주는 편이니 불편하기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걸어서 30분 정도에 North park mall이 있고 내부에 H&M, 타겟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음식점 중에서는 칩필레나 Wasabi라는 일식당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외부 시설입니다. 그 외에 자주 가던 곳은 매주 월요일 셔틀이 있는 월마트와 조플린의 유일한 아시아마켓인 Foxfarm이 있습니다. Foxfarm에 한국 음식이 있기는 하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라면이나 고추장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어서 제대로 된 한국음식을 사고 싶으시다면 스프링필드에 있는 한인마트에 가야합니다. 김치나 신라면, 불닭볶음면 정도는 매주 데려다주시는 월마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

MSSU에 가려면 조플린공항이나 스프링필드 공항을 이용하실 겁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봉사자 분들이 공항으로 데리러 오십니다. 그날 기숙사를 배정받고 봉사자분들과 식사를 하고 월마트에 가서 침구류 등을 사게 됩니다. 오티 전 일주일 정도의 시간에는 교환학생들이 매일 모여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카페테리아가 열기 전 일찍 도착한 교환학생들을 위해 매번 프렌드십 패밀리를 해주시는 봉사자 분들께서 식사를 준비해주십니다. 오티가 시작되면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생증 카드를 만듭니다. 이 때 TB테스트(결핵검사)도 하게 되니 한국에서 미리 하고 가실 필요 없습니다. TB테스트 결과가 나와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받으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어학 점수가 없어서 어학교환으로 MSSU에 파견되었습니다. MSSU의 장점은 어학점수가 없어도 미시간테스트를 보고 점수에 따라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테스트의 난이도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 이걸 위해 따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테스트 후에는 담당 교수님과 면담 후 수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교환학생은 재학생이 수강신청이 끝나고 남은 자리를 신청하고, 교수님을 통해서만 수강 신청할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면담에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Crime Scene investigation, art appreciation, Principles of Marketing, Beginning Ceramic art 4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대학 수업은 매주 숙제가 있고 시험도 교수님에 따라 3~4번 있습니다. 수행이 어렵지는 않지만 매번 신경 쓸게 많아서 피곤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Crime Scene investigation**은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다양한 범죄에 대한 이론 지식과 실제 사례에 대해 배우고 마지막에는 범죄현장을 꾸며 놓은 실습실에 가서 범죄현장 조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이론에 대한 퀴즈 프린트물을 주시고 온라인 시험이 3번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법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범죄 용어가 익숙지 않아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art appreciation**은 MSSU의 가장 큰 교양 수업 중 하나로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셔서 여러 강의가 있습니다. 교수님마다 수업의 편차가 크다고 하니 주변인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저는 **Carmen**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미술작품을 보고 분석하는 이론 강의였습니다. 강의 자체가 재밌는 편은 아니지만 쉽고 여행 시 미술관에 갔을 때 수업 때 배운 작품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매주 과제는 없지만 수업 중 있는 과제를 학기말에 제출해야 하고, 한 학기에 4번씩 미술 작품에 대한 에세이와 시험이 있습니다.

**Principles of Marketing**은 마케팅 전공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들었던 강의입니다. 다른 수업과 다르게 3학년 전공이라 약간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기본 이론 강의이고, 용어나 사례를 영어로 배우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어서 한국에서 들었을 때보다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매주 과제가 있고 4번의 오프라인 시험을 봐서 학점을 유지하는 데 조금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한다면 시험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질문이 길어서 읽는 데 현지 학생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없다면 교수님께 말씀드려 시간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Beginning Ceramic art**은 도자기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교수님께서 과거에 한국에 교환학생을 오셨어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고 한국학생들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수업 자체는 만만한 수업은 아닙니다. 저는 이 수업이 가장 재밌고 가장 힘들었습니다. 수업에서는 찰흙 제조하는 것, 물레 사용하는 법, 유약 처리하는 법 등 도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배웁니다. 수업 시간도 긴 편인데, 그때만 연습해서는 과제물을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막판에는 매일가서 새벽까지도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학점이 걱정되어 예술 수업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숙사는 크게 퀴드, 라이온빌리지, 이스트홀, 아파트먼트, 맥컬믹홀이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인원수	화장실	부엌 유무
퀴드	4인 (1인 1실)	개인 이용	o
라이온빌리지 (스위트)	4인 (1인 1실)	2인 1개	o
라이온빌리지 (일반)	2인 (2인 1실)	공용	x
이스트홀	4인 (2인 1실)	2인 1개	x
아파트먼트(세미 프라이빗)	2인 (1인 1실)	2인 1개	x
아파트먼트 (일반)	4인 (2인 1실)	4인 1개	x
맥컬믹홀	1인	공용	x

저는 아파트먼트 세미 프라이빗을 이용했는데 만족스러웠습니다. 신식은 아니지만 방이 넓고 룸메이트가 1명 뿐이라 부딪히는 일이 적습니다.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같은 기본 시설은 제공됩니다. (맥컬믹에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고생하는 친구들을 종종 봤습니다.) 요리를 하지 않는 타입이라면 아파트먼트 세미 프라이빗 추천드립니다.

밀플랜은 일주일 10개 했는데 5개도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반에는 맛있어도 똑같은 요리가 계속 나오기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밀플랜 외에는 식사를 해결할 방법이 인스턴트 말고 없어서, 주방이 있는 경우는 5개, 없는 경우는 10개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MSSU의 가장 큰 장점은 **friendship family**와 **conversation partner**입니다. 패밀리는 초반에 결정되고 파트너는 제가 교수님께 요청해서 뒤늦게 배정되었습니다. 패밀리는 정말 미국의 부모님이 생긴 것처럼 매주, 또는 2주에 한번 정도 만나서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외식을 하는 등의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캠핑을 가기도 합니다. 특히 땡스기빙데이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패밀리네 집에 가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파트너는 배정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학기말까지 배정되지 않아서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요청한 학생들만 배정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종종 만나 외식도 하고, 필요한 것도 사고 친구네 가서 한국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패밀리나 파트너 모두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해주기도 하지만 부실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반에 만나면서 연락이 뜸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패밀리나 파트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MSSU는 시골이라 놀거리는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친절하고 학교행사가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보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조금 소극적이어서 다른 외국 친구들과 놀 기회를 많이 잡지 못하고 한국 친구들 하고 많이 놀았던 것 같아서 약간 후회가 되기는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먼저 다가와서 놀자고 하지 않으니 먼저 가서 친근하게 해야 외국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노력하면 많이들 받아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바로바로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공지를 안주는 경우가 종종 있고, 교환학생이라 영어가 서툰 점을 이해하셔서 담당자와 연락하면 대부분 기한이 지났어도 해결해 주십니다. 참고하셔서 즐거운 교환학생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정지영
학번(연도만) 및 전공	교육학과 21학번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어학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Missouri Southern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3년 1월 23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내용

#### 1) 기숙사/밀플랜

기숙사는 크게 4가지로 Apartments, East Hall, Quads, Lion village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East Hall 기숙사를 이용했고 2인 1실로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용하다 보니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방을 공유하는 것이 불편해 개인 방이 있는 기숙사가 저에게 더 잘 맞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Lion village는 크게 Traditional과 suites가 있습니다. Traditional은 침대, 옷장, 책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용화장실을 이용합니다. Suites는 4인끼리 사용하며 개인 방이 각자 주어지고 화장실은 2개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 기구와 주방, 거실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식당) 아래 있는 laundry가 고장이 나서 3개월 정도는 라이온 빌리지에 있는 세탁기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study room도 라이온 빌리지에 있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기숙사 선택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artments는 private로 2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서 가성비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Quads는 대부분 고학년이 사용하는 만큼 방마다 개인 화장실이 있고 세탁기도 방마다 있어 자유사용 가능합니다.

#### 밀플랜

밀플랜은 1주일에 5번, 10번, 15번, 19번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0번 먹을 수 있는 C로 선택해서 먹었습니다. 대부분 교환학생이 C를 선택했고 생활하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멕시칸이나 아시안 푸드가 나왔고 메뉴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Dining Information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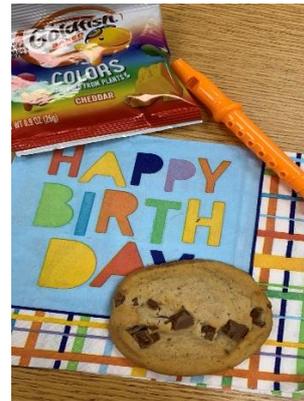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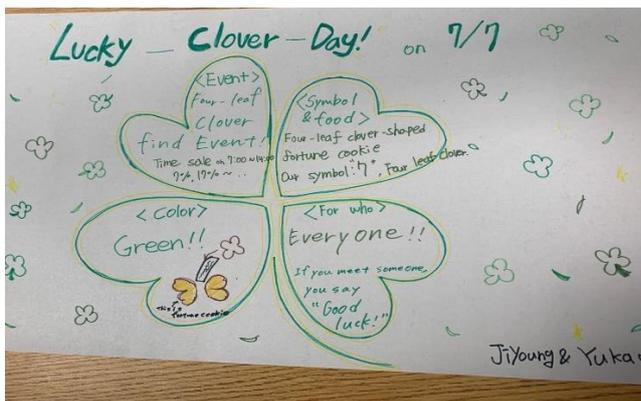
▲ 밀플랜 음식

## 2) 수업 및 수강 신청

우선 수강 신청은 직접 가서 남은 자리를 보고 바이저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TB 테스트 결과가 있어야 수강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결과지를 가져가라는 메일이 옵니다. 다만, 저는 결과가 늦게 나와 수강신청을 못 하고 있어 메일이 안 왔지만 찾아가서 받을 수 있다고 여쭙보니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결과가 늦게 나온다면 직접 찾아가 보길 바랍니다.

수업은 L4: Speaking/Listening(ESL) Beginning Algebra(Math),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ntrepreneurship 이렇게 총 4개를 수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제는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 매주 과제와 퀴즈가 있고 Paper도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시험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한국보다 시험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ESL은 영어 집중 수업으로 국제 학생들이 듣는 수업입니다. 2~3주에 한 번 개인 발표를 하고 짧은 글을 숙제로 읽고 오고 퀴즈를 푸는 형식으로 수업은 진행되었습니다. 레벨4이지만 난이도는 쉬운 편이고 부담이 적은 수업이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홀리데이, 캔디 등을 생각해내 종이에 그리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수업 방식이 신선하고 여러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거의 듣지 않았지만 교수님이 학생들을 많이 생각해 매달 생일 축하도 해주시고 재밌게 들어서 수강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Math 수업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을 배웠고 어렵지 않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미국의 수학이 궁금했기에 만족했습니다. 수학 용어들만 외우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수업 또한 많은 국제 학생이 수강했는데 저는 Intercultural을 들었습니다. 수업은 화, 목요일에 있었는데 화요일에는 강의식 수업, 목요일에는 토론이나 퀴즈와 같은 참여형 수업이 이뤄졌습니다. 구어로만 진행하는 communication 수업 아닌 어떻게 해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배우는 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업으로 수강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8명 정도가 듣는 매우 작은 강의였습니다.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이 수업의 주된 내용입니다. 매주 비즈니스에 대한 토픽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에 맞춰 학생들의 사업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Pitch 발표로 자신의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competition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혼자 이 강의를 수강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알려주시고 다른 친구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듣고 배우며 해외의 비즈니스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다른 언어로 수업을 듣는 게 힘들지만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더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SL 수업

## 3)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학교 행사

개강 전주에 국제 학생들끼리 OT를 진행하여 학교 보험이나 수강 신청, 주의점 등을 사전에 알려줍니다. 전통의상을 입는 날도 있어 전 세계의 전통 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OT 때 다른 국제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club이 학교 Homecoming과 같은 행사에 참여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할로윈 파티와 같은 행사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다운타운에서 열리는 축제나 학교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과 홈 커밍에 큰 행사가 열립니다.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학교 티셔츠나 모자들을 주기도 해 참여해서 받아갔습니다.

학교의 주된 프로그램으로는 **Host family**와 **conversation partner**가 있고 개인마다 매칭해줍니다. 보통 학생 2~3명으로 같은 호스트 패밀리가 매칭되었고, 제 경우는 매주 호스트 패밀리와 만나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쇼핑하기도 했습니다. 조플린은 매우 작은 시골이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 호스트 패밀리분들에게 부탁해야 할 일이 많았고 호스트 패밀리와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패밀리분들이 한국에 호의적이고 국제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Conversation partner**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지정되었습니다. 파트너 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이것은 ESL을 듣는 학생들이 먼저 정해져서 만약 자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빠르게 학교 측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환 학생들은 문의해 11월쯤에 파트너가 정해졌습니다.



▲ Host family

#### 4) 시설 및 교통

학교시설은 깨끗하고 좋습니다. 중앙 **Billingsly Student Center**에는 운동할 때 이용하는 **Gym**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플랜 신청시 제공해주는 다이닝 달러 200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온댄스 그리고 학교 옷이나 굿즈, 책을 구매할 수 있는 **Book store**가 있습니다. 라이온댄스에는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먹을 수 있고 공강 시간에 자주 이용했습니다. **BSC** 왼쪽에는 도서관과 학비를 내는 **Hearnes Hall**, 커뮤니케이션과 ESL 수업을 하는 **Webster hall** 등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걸어서 25분 정도 가면 **North park mall**이 있습니다. **H&M**이나 **칙필레 (Chick-fil-A)**등이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학생이 이용하고 실제로 걸어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자주 놀러 가는 곳으로는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Springfield**라고 하는 몰과 음식점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스프링 필드에는 아시안 마켓과 한식집도 있습니다. 또한, 생필품이나 음식은 매주 월요일마다 월마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이때 구매했습니다. 대중교통은 보지 못했고 저는 호스트 패밀리, 컨파 또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차를 이용했습니다. 면허를 따서 렌트카로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 5) 팁

수업을 들으며 현지인이나 룸메이트들과 친해지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조플린은 작은 시골이라 주변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들이 많을수록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현지 친구를 사귀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제학생끼리 가까워지게 되는데 현지인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려고 하고 실제로 저는 이때 영어 회화가 많이 늘었습니다. 기숙사는 잘 찾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걸로 고르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오克拉호마 시티, 뉴욕과 캐나다 이렇게 3곳을 다녀왔고 노동절, 가을 방학, 종강 후에 각각 다녀왔습니다. 미주리와 가까이 있고 여행 가기 좋은 곳으로는 시카고가 있으며 많은 교환학생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만큼 여러 곳을 여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를 갔다 돌아올 때에는 허가 사인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고 모쪼록 즐거운 학교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나영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19 생명공학과
파견시기	2023 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StonyBrook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2 월 5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안녕하세요. 2023 학년도 2학기(한국 기준)에 StonyBrook University로 한 학기 정규교환학생을 다녀온 김나영입니다. 교환학생 준비를 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 교환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와 이렇게 보고서를 쓰고 있으니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있으며 알게 된 정보들과 추천 드리고 싶은 것들을 보고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전반적인 정보

스토니브룩 대학교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주립대학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뉴욕”하면 떠올리는 맨해튼 같은 대도시와는 거리가 먼 시골이지만, LIRR이라는 기차를 타고 맨해튼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되며 이러한 접근성은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접근성을 이용하여 스토니브룩에서 맨해튼을 셀 수 없이 오갔고 이는 매우 큰 경험이자 추억이 되었습니다. 만약 스토니브룩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신다면 꼭 시간이 날 때마다 맨해튼을 방문하여 많은 추억을 쌓길 추천 드립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스토니브룩 대학교는 롱아일랜드라는 매우 유유자적하고 여유로운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동네의 치안이 좋고 학교 내에도 StonyBrook Police가 항상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차가 없으면 불편한 경우도 많지만 버스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SmithHaven Mall에 가서 쇼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토니브룩 대학교에는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한국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낯선 나라에서 처음 살아보는 기숙사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외국인 친구들보다 한국인 친구들이 친해지기도 쉽고 같이 있을 때 더 편하다 보니 외국인 친구들과과는 많이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의지 문제이므로 영어를 늘리고 싶거나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면 한국인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기보다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더 다가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추천 드립니다.

### 2. 가을 학기에 있는 여러 행사들

미국은 가을 학기 개강이 신입생을 맞이하는 첫 학기 개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열립니다. Corp라는 어플을 깔면 매일 있는 행사의 정보를 볼 수 있고 참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는 international 학생들을 위해 정말 많은 행사들을 주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들에 잘 참여한다면 즐거운 교환학생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행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친구들과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있는 스포츠인 미식축구를 보러 간 날입니다. 스톤브룩 대학교와 타 대학교가 함께 경기를 하였기에 스톤브룩 학생은 공짜로 관람이 가능했습니다. 각 학교 치어리더들이 하는 치어리딩도 보고 다같이 응원가를 부르는 것도 보며 매우 신났던 하루였습니다.



학교 내 Staller Center 앞에서는 큰 행사가 종종 열리는데요, 이때 행사에 참여한다면 무료 음료 쿠폰이나 학교 티셔츠 같은 굿즈들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꼭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Staller Center 앞에서 열리는 행사는 거의 모두 참여하였는데 매우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



또한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는 정말 여러 행사들을 주최하는데 그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행사는 **Free Food**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매일 밥을 해 먹어야 했던 스토니브룩 생활에서는 이러한 프리 푸드를 제공하는 행사들이 매우 소중했는데요, 저는 다른 문화권을 체험하고 그 나라 전통 음식을 먹는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위 사진은 Wolfie Land 때의 사진입니다. 울피 랜드는 일 년에 한 번, 가을 학기에만 열리는 행

사로 학교 내 주차장에 놀이기구들을 설치한 후 학교 내에 놀이공원을 만들어 함께 노는 행사입니다. 일 년에 한 번 있는만큼 매우 큰 행사이고 학교 내에 이렇게 놀이 기구들이 설치되어 친구들과 밤까지 함께 노는 기억은 매우 소중한 기억으로 남으므로 꼭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위 행사는 스톤브룩 대학교에서 international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했던 Thanksgiving Dinner 행사입니다. 미국 문화가 생소한 국제학생들에게 Thanksgiving Day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Thanksgiving Day에 먹는 칠면조 요리를 제공하여 문화를 확실히 이해하게 도와주는 행사였습니다. 스톤브룩 대학교에는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굉장히 많으니 흥미가 가는 행사들에 많이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미국 가을학기에 교환을 가게 되면 많은 미국 기념일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할로윈, 블랙프라이데이, 땡스기빙데이, 크리스마스 등 큰 기념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알차고 즐거운 교환학생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런 행사들에 매우 진심인 나라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관련 행사들을 많이 주최하고 맨해튼에 나가서도 이러한 시즌들과 관련된 여러 조형물들과 행사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 3. 스톤브룩 대학교에서의 생활 정보

스톤브룩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경우 보통은 거의 다 West Apartment라는 기숙사에 배정받게 됩니다. 저는 웨스트 아파트의 싱글룸에 살았고 6명에서 화장실 2개와 주방, 공용 공간을 함께 썼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웨스트 아파트는 주방이 있는 기숙사로 학식(Dining) 대신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룸메들과 함께 장을 보고 매일 저녁을 함께 만들어 먹어서 식비를 아낄 수 있었고 추억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 직접 가서 장을 보는 방식과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가는 경우에는 학교 쇼핑 셔틀 버스를 타고 Wall Mart나 Stop&Shop, Target을 가거나, 일반 버스를 타고 SmithHaven Mall에 가서 Trader Joe's나 Aldi 같은 마트에 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는 경우는 InstaCart나 우버라는 어플에서 시키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Weee라는 아시아 식품을 파는 어플에서 한식을 위한 재료를 사서 항상 한식을 만들어먹곤 했습니다. 뉴욕은 외식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학교 내 여러 학식당들도 매우 비싼 편이기 때문에 직접 장을 봐서 해먹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갔다 온 경험이 인생 최고의 경험 중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교환 생활을 보냈습니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여러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며 시야를 넓히고 폭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누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예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 연극전공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Stony Brook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1월 28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않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외국어를 학습하고 그 언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학교에서의 교환학생 기회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평상시의 생활 환경이나 환경이 한정되어 있어 외국어나 외국 문화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고, 늘 오랫동안 살아왔던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견교를 정할 때도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학교 담당자 분께서 제가 가진 어학 성적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조건들도 추천해주셔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는 뉴욕(브로드웨이)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학교를 고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첫번째 기준으로 정했고, 스토니브룩 대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추후에 교환학생으로의 파견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도 갈 수 있는 학교와 국가 선택지가 다양해서 많은 고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왜 교환학생을 가려고 하는지, 교환학생 기간을 통해 가장 경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다 보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파견교를 정하고, 지원을 하고,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각 학교의 담당자 분과 메일을 통해 연락을 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긴 기간동안 생활하는 것은 처음이라 당연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상명대학교에서 같이 파견된 학생들과 함께 이동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저의 교환학생 생활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최소학점인 12학점을 들었습니다.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수강신청을 하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제가 짠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는다는 생각보다는 직접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고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수업이나, 한 학기 동안 흥미를 가지고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강의를 들을 마음가짐으로 파견을 갔습니다. 실제로 수강 정정 기간은 일주일이 넘어서 충분히 경험하고 생각한 후에 시간표를 정정할 수 있었고, 수강 인원이 꽉 찼던 수업도 계속 빈 자리가 생겨 새로 시간표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시간표를 정하기보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수업을 신청해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12학점을 들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12학점 이상을 듣는 학생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12학점을 들었음에도 과목마다 과제가 있고 격주로 퀴즈를 보는 과목도 있어서 학기 초에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제가 느낀 본교와 파견교의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대체로 3학점 수업은 일주일에 하루, 세 시간을 연달아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들었던 강의의 경우, 3학점 수업은 일주일에 3일, 55분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대형 강의의 경우, 3일 수업 중 하루는 해당 과목의 조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복습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조금 더 심층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실의 크기나 캠퍼스의 크기도 매우 커서 도서관 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았으며 이런 시설들을 경험해 본 것이 새로우면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대형 강의이더라도, 교수님께서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소통하는 수업의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자취를 해본 경험은 있어도, 기숙사에 사는 것은 처음이라 미숙하고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한 방을 쓰며 아침이나 귀가 후에 스몰 토크를 나누는 것은 쉽게 느낄 수 없는 작은 재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경우, 저는 학교의 밀플랜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고 따로 식재료를 구매하여 요리해먹었습니다. 주방 기구나 가전용품을 사려고 할 때, 값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룸메이트들과 이야기를 하여 나눠 쓰기로 하고 구매했더니 값은 적게 내면서도 필요한 용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토: 학교 근처 스미스헤븐 몰, 일: 학교 근처 식료품점) 쇼핑 루트 버스가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식재료를 사서 요리해 먹기도 용이했습니다.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들으며 생각보다 저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이 많았습니다. 12학점을 듣다 보니 하루에 수업이 많아야 3과목 (3시간) 정도였고, 따라서 수업이 끝나면 잠들기 전까지 저에게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저는 과제를 하거나 학교에 있는 레크레이션 센터(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제가 파견을 갔던 가을 학기에는 가을 방학과 땡스 기빙 방학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짧게 여행을 다녀오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기가 끝나고 따로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 학기 중에도 여행하기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파견교에서 가장 놀랍고 흥미로웠던 부분은 학교 내의 행사 개수와 학교 동아리 활동의 종류였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개강하고 얼마 안 있어 동아리 페어를 하는데 이때 몇 차에 나뉘어 동아리가 소개되고, 오디션이 있는 경우 동아리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기한이 있지만 대부분의 동아리들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 춤 등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어서 여가 시간을 이용해 외국인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학교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동아리 활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행사를 소개해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깔고 날짜를 조회해보면 최소 7개 이상의 행사가 조회되고, 참가 신청 버튼만 누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거나, 같이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보거나, 보드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상영하는 등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활기찬 분위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맨해튼과 가장 가까운 학교였기에 스토니브룩 대학교를 골랐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2시간 정도 기차를 타면 맨해튼에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차 탑승법이 간단하고, 편해서 자주 시티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티까지 나가지 않아도 학교 근처에 카페나 편의점, 식당, 몰, 구경할 수 있는 항구가 있어서 충분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에 좋았습니다.

지내는 동안은 길게, 지나고 보니 짧게 느껴졌던 한 학기의 시간동안 많은 경험들이 저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적으로는 많은 분량의 글을 과제로 읽다 보니 읽는 속도가 빨라졌고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보니 원어민이 원래 속도로 이야기하거나,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실 때도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는 듣는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다양한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시야를 한층 넓힐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채원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110644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어학교환학생(1학기)
자매교명	stonybrook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1월 28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제가 한 학기 동안 있었던 스톤브룩은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어 기차를 타고 편도 2시간이면 맨하튼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맨하튼을 놀러갔었으며, 뉴욕은 할 것도 볼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지루하지 않게 미국에서 생활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뉴욕에 위치해있어 물가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비쌉니다. 또한 학교에 한국인이 정말 많아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인과 교류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ORQ라는 어플을 통해 학교 이벤트를 자주 나가고 기숙사 안에서도 외국인에게 먼저 말을 걸면서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해진 친구들과 같이 시티를 나가거나 땡스기빙 때 친구 집에 놀러가서 미국 문화를 경험하고 같이 여행도 가면서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친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뉴욕 위치가 미국 여행하기 좋아서 가을방학을 이용해 올랜도를 갔다왔고 학기 후에는 LA,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니언, 보스턴, 퀘벡, 몬트리올을 여행했습니다.

IEC 수업에는 절반이 중국인이고 그 외에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브라질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IEC 수업 말고도 전공 수업 청강도 해봤었는데 개인적으로 IEC 프로그램이 외국인 친구와 교류하기 더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IEC 챗룸이라고 스톤브룩 재학생과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어학교환학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서 어학성적이 없으시다면 어학교환학생도 추천합니다.

+)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숙사에 빌런이 너무 많았어서 정신건강을 위해 되도록 1인실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학기동안 스톤브룩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만나고 잊지 못 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만약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가신다면, 뉴욕에 있는 스톤브룩을 추천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송유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1 그린화학공학과
파견시기	2023 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 어학연수
자매교명	STONY BROOK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3 년 12 월 31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 1) 학교 소개

**Stony Brook Uni.**는 뉴욕 주립대 스톤브룩 캠퍼스입니다. 뉴욕 주 맨해튼과 근접한 롱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으며, 기차를 이용하면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여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기숙사와 식당, 건물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으며 학교 전반적으로 아시아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식, 중식, 일식을 전부 접할 수 있습니다.

### 2) 학교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Intensive English Center**에서 주관하며, 배치고사-수업-중간고사-수업-기말고사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치고사는 **Oral test, listening, reading, grammar, vocabulary, writing** 시험을 진행하여 반을 나눕니다. 2023년도 가을학기 기준, **104**와 **103**반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반이 됩니다. 두 반이 수업하는 과목은 같으나 다른 교재를 사용하고, 선생님은 돌아가시면서 수업을 하시지만 각자 담당 반이 있습니다.

수업은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으로 나뉩니다. 오전 수업에서는 두 반 모두 **reading writing, grammar, speaking, listening**을 돌아가며 배우고, 오후 수업에서는 두 반이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속했던 **104** 반의 경우, 미국 문화 발표, **ted talk** 발표 등과 같은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간고사는 다른 **unit test**들과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기말고사는 배치고사와 같은 유형의 시험지에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적은 참여도, 시험 점수, 과제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든 시험, 발표, 과제 등의 평균을 내어 점수에 들어 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업 태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IEC**에서는 수업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녁 만찬, 추수감사절 저녁, 할로윈 파티 등 다양한 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Chat room** 프로그램은 **TA**를 만나 **30**분씩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TA**가 있으며 학교 과제, 여행 이야기 등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성적은 **pulse**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업 자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상명대학교의 코스모스와 비슷한 앱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duo mobile**이라는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2차 인증을 하는 앱입니다.

### 3) 방과 후

수업 이외의 활동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다양한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Corq** 앱을 통해 동아리 홍보 날짜를 알 수 있으며, 과학, 인문학 등 많은 동아리가 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체육입니다. 프리즈비, 수영, 배드민턴, 달리기 등 다양한 동아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IEC에서 추천하는 동아리로는 **English pal**과 **reading** 동아리가 있습니다. 잉글리시 팔이란 스토니브룩 학생과 어학연수 학생을 맞아 영어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지원 시 구글 폼을 사용하여 원하는 파트너 조건을 입력하게 되며 최적의 파트너를 매칭받는 형식입니다. 다만 매칭된 파트너에게 연락이 오는 것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파트너를 찾지 못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Reading** 동아리는 영어 원서를 읽고 소감을 나누는 동아리입니다.

#### 4) 학교 시설

학교에는 **gym**, 수영장,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어학연수생도 포함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배드민턴 장, 수영장 등은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체육관은 **rec on the go** 앱을 사용하여 바코드를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가, 줌바, 스피닝 등 다양한 체육관 프로그램은 수업시간 전까지 위의 앱을 통해 예약을 진행한 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Corq** 앱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의 일정이 나와있습니다. 페인팅, 요리 대회, 학교 운동 대회 일정 등 다양한 일정을 확인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thletic** 앱을 통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기 일정을 확인하고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학교 학생은 모든 티켓이 무료이며 농구, 럭비, 풋볼 야구 등 다양한 경기가 있습니다.

학교 곳곳에는 복합기가 있어 프린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haros print** 앱을 사용하면 한 학기당 75 달러의 프린트를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하고 복합기에 학생증을 태그 한 후 프린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는 다양한 셔틀 버스가 존재합니다. **West**와 **east**를 지나는 버스부터 주말에는 **port Jefferson**, 마트에 가는 버스가 운행하고 모든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ouble map**을 통해 셔틀버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5) 기숙사

많은 신입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합니다. 기숙사는 **west**와 **east**에 존재합니다. **East**에 있는 기숙사는 대부분 2인실이며 1학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East side dining**과 도서관, 체육관 등 다양한 건물과 밀접하여 생활이 편리합니다. **west**에는 1인실과 3, 4학년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형식의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West side dining**과 근접하나 다른 학교 시설과 떨어져 있어 셔틀 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각 기숙사는 라운지와 휴게시설, 세탁실, 공용주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탁실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고 기숙사 마다 세탁실이 여러 개지만 세탁기가 적은 곳과 세탁실이 한 개지만 세탁기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laundry view** 앱을 사용하여 각 기숙사의 세탁기, 건조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각 층별 **RA**가 층 관리를 맡게 됩니다. **RA**는 주로 2-3학년 학생들이 맡으며 사내 공지 등을 안내해줍니다. 기숙사에 공지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앱이 **group me**로 세탁실 고장 문제, 공용 주방 문제 등 다양한 공지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숙사에 사는 학생은 **meal plan**을 필수로 신청하게 됩니다. **Meal plan**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Meal swipe + dining dollar**로 구성된 플랜과 **dining dollar**로만 구성된 플랜입니다. **Meal swipe**는 **east/west side dining**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간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번 **take out box**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박스는 사용 후 반납을 하여야 다음 테이크 아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를 위한 **meal swipe**를 2번 사용할 수 있고 **roth cafeteria**에서 하루 한번 **meal exchang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nig dollar**란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전용 달러입니다. 학생증에 충전이 되는 방식으로 아시안 식당, **roth cafeteria**, 스타벅스, 식당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ast/west side dining**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아침, 점심, 저녁별로 가격이 상이합니다. **Nutrislice** 앱을 사용해 매일 식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get mobile**에서 다이닝 달러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기타

학교에서 진행하는 **beyond the brook**은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저렴한 가격에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 사과 줍기 체리 따기, 놀이공원 가기 등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썩 활동은 티켓팅이 힘들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알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는 **lyft, uber, uber eats, chase, what's app, train time** 등이 있습니다. **Lyft**와 **uber**는 택시를 부르는 앱입니다. 한국에서 미리 번호 인증을 하고 가도 되고 미국 번호를 받은 후 인증을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우버보다는 리프트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우버잇츠는 배달의 민족 같은 앱으로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는 앱입니다. **Chase**는 은행 앱으로 미국에서 계좌를 열 경우 이 앱을 사용하여 계좌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결제를 진행한 경우 편안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What's app**은 미국의 카카오톡과 같은 앱으로 친구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앱입니다. **Train time**은 학교에서 뉴욕 시티로 나갈 수 있는 기차표를 사는 앱입니다. 기차표 종류에는 **peak**와 **off peak**가 있어 시간대 별로 다르기에 잘 보고 사야 합니다. **Off peak** 표가 더 싸고 주말과 평일 이른 오전, 늦은 오후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stony brook**에서 **penn station**으로 가는 표를 **10 trip**으로 구매하게 되면 **129**불입니다. 가격만 같다면 반대방향인 **penn**에서 **stony brook**으로 올 때 해당 기차표를 사용하여도 무관합니다.

## 7) 소감

어학연수는 저에게 새롭고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정규, 장학 교환학생들처럼 현지의 수업을 듣지 못해 현지의 대학이 어떠한 느낌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해외 학교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지내는 것만으로도 새로웠습니다.

가장 먼저 시야가 확장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것은 여행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외국인, 외국 문화를 접하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깨달거나, 지금까지 갖고 있던 편견을 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살며 생각해볼 수 없었던 부분을 많이 생각해볼 수 있게 되고 해외에서는 더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온다면 고민없이 해외 생활을 다시 경험할 것입니다.

이 학교를 선택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이 많은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학연수생인 저는 대학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오히려 한국인이 많아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음식이 안 맞아 힘든 일이 없었고 적응을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반은 브라질, 우크라이나, 중국, 아프가니스탄, 한국으로 총 5개국의 친구가 있었고 제가 학교에서 접한 한국인은 같은 상명대학교 학생들 정도였습니다. 그 이외에 길을 걸으며 한국인을 몇 명 접하거나 체육관에서 본적은 있지만 크게 교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NYC**를 쉽게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뉴욕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관광지들은 주말에 쉽게 다녀올 수 있어서 다양한 관광 명소를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항을 갈 수 있는 교통편도 있기 때문에 미국 내 다른 지역을 여행하기에도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미국 여행을 하면서 친구들과 안 맞았던 점도 불편했던 점도 있었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여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올랜도 여행 시 방문했던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너무 즐겁고 좋아서 제일 좋았던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 학교를 추천하냐고 묻는다면 추천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학교 시설도 너무 좋았고 어학연수 학생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직원 분들도 너무 친절하고 좋았고 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갖고 있습니다.

어학연수에 다녀온 이번 학기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반년이 될 것 같습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윤세민
학번(연도만) 및 전공	지적재산권전공 2021
파견시기	2023 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SUNY StonyBrook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1 월 22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1) 파견 대학 정보

SUNY StonyBrook은 New York State 중 Long Island에 위치해있습니다. 뉴욕 주립대 중 이과대학이 특화되어있으며 수준 높은 수업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종이 많은데 타 대학에 비해 동양인이 많습니다. 특히 SUNY Korea나 타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많이 와 한국인이 많습니다.

### (2) 지역 및 생활 정보

Long island는 NYC와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2시간 정도 기차를 타면 NYC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장소들을 모두 방문할 수 있습니다. StonyBrook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Smith haven mall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시간에 한 대 쇼핑몰로 가는 버스가 다니며, 토요일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Target, Walmart 등 마트가 있는데 일요일에 학교 버스가 무료로 운행합니다.

교환학생 분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평일에는 학교 밖을 나가지가 쉽지 않은데 체육관, 카페, 식당, 편의점 등 학교 시설이 잘 되어있어 평일에 학교 밖을 나가지 않아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3) 수강과목 및 수업 활동 정보

StonyBrook IEC프로그램은 103,104반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따라 수업 내용이 다릅니다. OT날에 레벨테스트를 보고 반 배정이 됩니다. 주 5일 수업을 하며 오전 수업, 오후 수업으로 나뉘는데 오전에는 speaking, listening 그리고 writing, reading 수업을 같이 묶어서 총 2교시로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American culture, Ted Talks, Voca, Grammar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발표 수업으로 104는 팀플이 있습니다.

### (4) 기타 과외활동 정보

학기 초에 동아리 박람회가 열리는데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으니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술 동아리는 한 학기만 하고 가기에 너무 짧기 때문에 운동 동아리나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활동 중에 StonyBrook 미국 학생과 국제학생들을 1:1 매칭을 해주는 English Pal 활동을 하면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영어회화를 연습하거나 미국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StonyBrook 지원 프로그램인 **Beyond the Brook**에 참여하면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박물관, 관광지, 농장, 놀이공원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행사들이 많이 열리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IEC Chat time**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이티브TA와 30분씩 대화하거나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후 얻은 것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뜻깊었던 활동이었습니다. 파견 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견 후에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면서 시행착오를 해결해나가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으로 영어 실력이 급격히 늘지는 않았지만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6) 후배들에게 조언

한 학기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파견을 가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어 같은 경우 가기 전에 영어 회화 공부를 어느 정도 준비해가면 미국에서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활동을 함께 있어서도 가기 전에 미리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계획하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학교환이었지만 정규수업들을 청강하였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학교환 프로그램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토플을 준비해서 정규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윤세민
학번(연도만) 및 전공	지적재산권전공 2021
파견시기	2023 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SUNY StonyBrook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1 월 22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1) 파견 대학 정보

SUNY StonyBrook은 New York State 중 Long Island에 위치해있습니다. 뉴욕 주립대 중 이과대학이 특화되어있으며 수준 높은 수업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종이 많은데 타 대학에 비해 동양인이 많습니다. 특히 SUNY Korea나 타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많이 와 한국인이 많습니다.

### (2) 지역 및 생활 정보

Long island는 NYC와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2시간 정도 기차를 타면 NYC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 봐왔던 장소들을 모두 방문할 수 있습니다. StonyBrook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Smith haven mall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시간에 한 대 쇼핑몰로 가는 버스가 다니며, 토요일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Target, Walmart 등 마트가 있는데 일요일에 학교 버스가 무료로 운행합니다.

교환학생 분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평일에는 학교 밖을 나가지가 쉽지 않은데 체육관, 카페, 식당, 편의점 등 학교 시설이 잘 되어있어 평일에 학교 밖을 나가지 않아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3) 수강과목 및 수업 활동 정보

StonyBrook IEC프로그램은 103,104반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따라 수업 내용이 다릅니다. OT날에 레벨테스트를 보고 반 배정이 됩니다. 주 5일 수업을 하며 오전 수업, 오후 수업으로 나뉘는데 오전에는 speaking, listening 그리고 writing, reading 수업을 같이 묶어서 총 2교시로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American culture, Ted Talks, Voca, Grammar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발표 수업으로 104는 팀플이 있습니다.

### (4) 기타 과외활동 정보

학기 초에 동아리 박람회가 열리는데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으니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술 동아리는 한 학기만 하고 가기에 너무 짧기 때문에 운동 동아리나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활동 중에 StonyBrook 미국 학생과 국제학생들을 1:1 매칭을 해주는 English Pal 활동을 하면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영어회화를 연습하거나 미국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StonyBrook 지원 프로그램인 **Beyond the Brook**에 참여하면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박물관, 관광지, 농장, 놀이공원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행사들이 많이 열리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IEC Chat time**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이티브TA와 30분씩 대화하거나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후 얻은 것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뜻깊었던 활동이었습니다. 파견 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견 후에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면서 시행착오를 해결해나가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으로 영어 실력이 급격히 늘지는 않았지만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6) 후배들에게 조언

한 학기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파견을 가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어 같은 경우 가기 전에 영어 회화 공부를 어느 정도 준비해가면 미국에서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활동을 함께 있어서도 가기 전에 미리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계획하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학교환이었지만 정규수업들을 청강하였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학교환 프로그램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토플을 준비해서 정규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